



연구보고서 2014-22-1-6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이진면 · 이용호 · 김재진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생산 전망

산업연구원, 2012(공저)

KIET 산업·거시경제 단기 계량전망모형 개발 연구

산업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이용호 산업연구원 연구원

김재진 산업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1-6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와 산업구조**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저자 이진면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한디자인

가격 5,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227-1 93330

---

## 제출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와 산업구조」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산업연구원 원장 김도훈



## 발간사 <<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일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수준인 대체출산율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이며 풀어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면한 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산업이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인구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별 생산, 수출입, 고용 등 미래의 산업구조를 전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의 이진면 연구위원, 이용호, 김재진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연구과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 연구원의 이삼식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초저출산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14년 12월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 목 차

<b>Abstract</b> .....	<b>1</b>
<b>요약</b> .....	<b>3</b>
<b>제1장 서론</b> .....	<b>19</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2
제3절 인구구조 고령화의 산업적 파급영향 .....	24
<b>제2장 산업구조 변화</b> .....	<b>25</b>
제1절 산업분류 .....	27
제2절 산업 생산구조 변화 .....	29
제3절 산업 교역구조 변화 .....	35
제4절 산업 고용구조 변화 .....	42
<b>제3장 중장기 산업구조전망</b> .....	<b>49</b>
제1절 전망절차 .....	51
제2절 산업 생산구조 전망 .....	53
제3절 산업 교역구조 전망 .....	62
제4절 산업 고용구조 전망 .....	71
<b>제4장 결론</b> .....	<b>79</b>
제1절 전망결과의 요약 .....	8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82

참고문헌 ..... 91

부록 ..... 93



## 표 목차

〈표 2- 1〉 산업분류 .....	28
〈표 2- 2〉 산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및 실질 증가율 추이 .....	30
〈표 2- 3〉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및 실질 증가율 현황 .....	34
〈표 2- 4〉 산업별 수출·입 경상비중 현황 .....	36
〈표 2- 5〉 세부 업종별 수출·입 경상비중 현황 .....	41
〈표 2- 6〉 산업별 취업자 비중 및 증가율 현황 .....	43
〈표 2- 7〉 세부 업종별 취업자 비중 및 증가율 현황 .....	46
〈표 3- 1〉 산업별 경상 부가가치 비중 전망 .....	54
〈표 3- 2〉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55
〈표 3- 3〉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전망 .....	58
〈표 3- 4〉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실질 증가율 전망 .....	60
〈표 3- 5〉 산업별 수출 비중 전망 .....	64
〈표 3- 6〉 세부 업종별 수출 비중 전망 .....	66
〈표 3- 7〉 산업별 수입 비중 전망 .....	69
〈표 3- 8〉 세부 업종별 수입 비중 전망 .....	69
〈표 3- 9〉 산업별 취업자 비중 전망 .....	72
〈표 3-10〉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전망 .....	73
〈표 3-11〉 세부 업종별 취업자 비중 전망 .....	75
〈표 3-12〉 세부 업종별 취업자 비중 전망 .....	76
〈표 3-13〉 세부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 전망 .....	77

---

## 그림 목차

[그림 2- 1] 산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현황 .....	31
[그림 2- 2]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현황 .....	32
[그림 2- 3]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현황 .....	33
[그림 2- 4] 산업별 수출 경상비중 현황 .....	37
[그림 2- 5] 산업별 수입 경상비중 현황 .....	37
[그림 2- 6] 제조업 업종별 수출 경상비중 현황 .....	38
[그림 2- 7] 제조업 업종별 수입 경상비중 현황 .....	39
[그림 2- 8] 서비스업 업종별 수출 경상비중 현황 .....	40
[그림 2- 9] 서비스업 업종별 수입 경상비중 현황 .....	40
[그림 2-10] 산업별 취업자 비중 현황 .....	44
[그림 2-11]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비중 현황 .....	44
[그림 2-12]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비중 현황 .....	45
[그림 3- 1] 전망절차 흐름도 (보사연 인구시나리오 , 시나리오1~3으로 수정) .....	52
[그림 3- 2] 산업별 경상부가가치 비중 전망 .....	54
[그림 3- 3]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전망 .....	56
[그림 3- 4]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전망 .....	58
[그림 3- 5] 수출 경상비중 전망 .....	63
[그림 3- 6] 서비스업 업종별 수출 경상비중 전망 **그림 파일 필요 .....	64
[그림 3- 7] 제조업 업종별 수출 경상비중 전망 .....	65
[그림 3- 8] 산업별 수입 비중 전망 .....	68
[그림 3- 9] 산업별 취업자 비중 전망 .....	71
[그림 3-10]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비중 전망 .....	74
[그림 3-11]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비중 전망 .....	75

---

## Abstract <<

Abrupt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will give considerable effect to economic growth, labor supply, macroeconomy as well as industry structure. As we can expect significant impact of aging on industry become imminent, this study focus on aging and considers changes in industry environment to forecast medium to long term industry structure change and find development strategy.

To do this task, we examine supply, trade, employment structure by industries which become basis of our future forecast. For the forecast, we consider both estimation results of industrial-macroeconometric model and the scenarios representing low, middle, high population dynamics. Also, we expand our forecasting period up to the year 2060 since population change in the year 2030 would be remarkable.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expect consistent post-industrial movement in our supply structure. Growth in manufacturing and SOC related industry will slowdown, and share of service industry will be expanded. Manufacturing will continue its positive growth trend by improvement of productivity due to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decrease in relative price by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decrease share of current account value-added to whole industry will follow decreasing trend. The share to

## 2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service industry will increase due to the situation of economic structure being more dependent on service.

Second, importance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exports will continue, whereas share of service and SOC-related industry will decrease in exports. Therefore, export dependence on manufacturing will be more deepened as exports structure is kept centered around manufacturing. However, efforts to keep advantage in technology, quality competitiveness is required as we expect consistent catch-up from developing economies, such as, China and India. Also, because we expect not only imbala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in exports, but also imbalance within manufacturing industries, remedies to counteract these imbalances are essential.

Third, job creation will slowdown by decline of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advancement by technology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efficiency of supply structure. Also, as lack of labor supply will be worsened by acceleration of aging, employment situation in whole industry will be worsened too.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improvement of quality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and improvement of labor productivity in service sector are required. To achieve this goal, our top priority of improving quality of human resource, and importance of developing plans for industry specific labor force enforcement that matches industry characteristics will become evident.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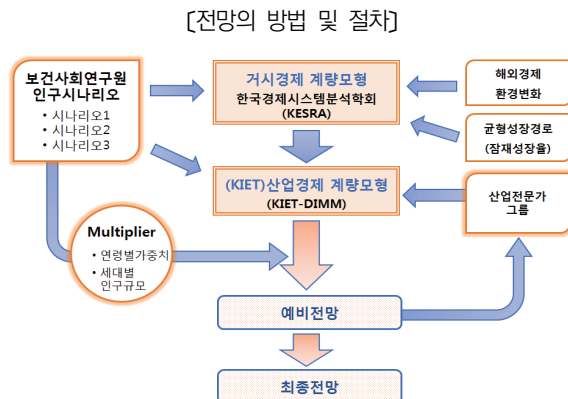
-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그로 인한 고령사회의 심화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인구고령화의 가속은 노동력 저하를 통한 경제성장 약화, 재정적 부담 초래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부정적인 영향 초래할 전망
- 고령화의 산업적 영향은 그 정도와 방향성이 일률적이지 않아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 분석이 필요
  -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작용하나 연령별 수요구조의 상이, 산업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간의 대체관계 차이로 인해 고령화의 산업별 영향은 상이
  -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는 인구구조 외에 소비구조, 자본축적 및 기술 진보, 국제 분업구조 변화, 사회·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
-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중점을 두면서 국내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의 전망 및 발전방안을 모색
  - 국내경제의 장기적 성장과정에서 수반된 산업별 성장패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
  - 향후 세계경제의 발전구도와 국제적 분업구조 변화, 국내의 수요구조와 생산여건 변화 및 인구고령화의 가속을 고려하여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 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접근을 통해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 2. 산업구조의 전망방법

- 산업구조의 중장기적 변화와 그 과정에서 인구고령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산업연구원의 산업계량모형(KIET-DIMM 2012)에 접목
- 인구변화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
- 해외경제의 환경변화, 국내의 거시경제부문에 대한 전망은 본 연구와 동시에 진행된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의 거시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결과를 활용
- 개별산업의 성장패턴과 산업구조 전망은 KIET-DIMM2012에 입각하여 인구변화가 개별산업의 생산, 수출과 수입,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승수(multiplier)를 활용



### 3. 주요 연구결과

#### 〈산업생산구조 전망〉

- 향후 국내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업의 비중이 지속 축소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SOC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생산구조의 탈공업화가 지속되어 서비스업의 비중은 확대 전망
- 1차 산업인 농림어업과 광업은 전산업 증가율을 큰 폭 하회하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 전산업 대비 비중은 2010년 2.66%에서 2030년 1.7%, 2060년 1.01%로 축소
- 제조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R&D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의 성장 지속
  -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산업 대비 비중은 점진적인 축소가 예상
  - 조립가공업의 성장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소비재와 기초소재산업의 성장은 둔화 전망, 이에 따라 제조업 내 산업간 성장불균형은 지속될 전망
- SOC 관련 산업은 경제의 저성장기조와 인구규모 축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 증가율의 둔화와 함께 전산업 대비 비중도 다소 축소될 전망

6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산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2.47	1.55	1.55	1.55	0.91	0.91	0.90
광업	0.19	0.15	0.15	0.15	0.10	0.10	0.10
제조업	30.72	26.25	26.27	26.32	16.94	16.99	17.07
소비재	4.08	2.55	2.56	2.56	1.23	1.23	1.24
기초소재	10.59	8.21	8.21	8.22	4.64	4.65	4.67
조립가공	16.05	15.49	15.51	15.54	11.07	11.10	11.17
SOC	6.81	6.08	6.07	6.06	6.16	6.15	6.12
서비스업	59.81	65.97	65.96	65.92	75.89	75.86	75.80
소비자	25.55	25.69	25.69	25.69	26.49	26.49	26.49
생산자	17.01	21.16	21.18	21.21	27.06	27.12	27.24
사회	17.25	19.11	19.09	19.02	22.34	22.25	22.07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별 부가가치 실질 증가율 전망〉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0.23	0.20	0.13	-1.23	-1.27	-1.34
광업	0.72	0.70	0.64	-0.82	-0.86	-0.92
제조업	3.21	3.18	3.13	1.39	1.36	1.30
소비재	2.16	2.14	2.09	1.08	1.05	1.00
기초소재	2.32	2.30	2.24	1.29	1.25	1.19
조립가공	3.94	3.92	3.86	1.49	1.46	1.40
SOC	1.98	1.95	1.88	0.62	0.58	0.51
서비스업	3.46	3.43	3.37	1.68	1.64	1.57
소비자	3.21	3.18	3.12	1.28	1.24	1.18
생산자	4.11	4.09	4.03	2.11	2.09	2.03
사회	3.14	3.11	3.03	1.69	1.64	1.56
전산업	3.23	3.20	3.14	1.51	1.48	1.41

□ 서비스업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서비스업의 전산업 대비 비중은 2010년 59.81%에서 고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30년 65.97%에서 2060년 75.89%로 증가할 전망



- 금융 및 보험업, 장비 및 용품 임대업, 정보서비스, 전문서비스, 연구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
-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 위생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의 성장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도소매, 음식숙박, 주거 서비스 등 소비자 서비스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전산업 대비 비중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

**〈수출입구조 전망〉**

- 우리산업의 수출구조는 제조업 비중의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림어업, SOC,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 축소 전망
- 반면 수입구조는 광업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축소될 전망
- 농림어업 수출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중 축소 지속
- 산업의 생산 규모가 증가추이를 지속함에 따라 생산원료 수입에 치중되어 있는 광업부문의 수입은 지속 증가 전망

〈산업별 수출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0.12	0.08	0.08	0.08	0.06	0.06	0.06
광업	0.02	0.01	0.01	0.01	0.00	0.00	0.00
제조업	86.50	90.22	90.18	90.11	93.88	93.81	93.67
소비재	5.56	4.11	4.12	4.14	2.77	2.79	2.83
기초소재	22.87	21.74	21.74	21.73	19.74	19.76	19.78
조립가공	58.07	64.37	64.33	64.25	71.37	71.27	71.06

8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산업별 수출 비중 전망 : 계속〉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SOC	0.07	0.05	0.05	0.05	0.04	0.04	0.04
서비스업	13.28	9.64	9.68	9.75	6.01	6.08	6.22
소비자	10.46	7.04	7.07	7.12	4.09	4.14	4.24
생산자	2.76	2.56	2.57	2.59	1.90	1.92	1.97
사회	0.06	0.03	0.03	0.04	0.02	0.02	0.02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제조업 수출은 신흥국과의 경쟁심화로 둔화가 예상되지만 기술개발 투자의 지속을 통해 경쟁력은 일정수준을 유지할 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해외시장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신흥 대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수출은 둔화 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내 산업별 수출의 불균형은 지속 심화될 전망, 조립가공업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재와 기초소재산업의 비중은 축소될 전망
  - 반면 제조업의 수입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
- 내수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과 SOC 관련 산업의 수출은 제조업의 지속적인 비중확대로 인해 축소 예상
  - 서비스업의 수출 비중 감소가 수입 비중 감소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비스부분의 무역수지 악화 예상

〈산업별 수입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1.79	1.61	1.61	1.62	1.66	1.68	1.72
광업	22.97	29.72	29.45	28.89	41.52	40.62	38.88
제조업	61.46	56.49	56.71	57.20	48.91	49.69	51.20
소비재	7.81	6.72	6.75	6.83	5.25	5.35	5.54
기초소재	27.50	26.67	26.79	27.06	23.65	24.09	24.94
조립가공	26.15	23.10	23.16	23.31	20.01	20.26	20.72
SOC	0.03	0.03	0.03	0.03	0.02	0.02	0.02
서비스업	13.75	12.16	12.19	12.26	7.90	8.00	8.17
소비자	6.61	5.08	5.09	5.12	2.98	3.01	3.07
생산자	6.38	6.59	6.61	6.66	4.67	4.73	4.85
사회	0.76	0.49	0.49	0.49	0.25	0.25	0.25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구조 전망〉

- 향후 우리경제는 경제성장의 둔화, 산업의 기술발전 및 생산구조 효율화 진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고용증가세 큰 폭 둔화 전망
  - 인구고령화의 가속으로 노동의 공급여건도 악화되면서 전산업 부문에서 고용상황은 어려움 지속
  - 서비스업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산업 평균 감소율을 상회하며 고용창출력은 전반적 악화 전망
- 농림어업은 생산의 감소, 기계화의 가속 등으로 취업자 비중이 크게 축소될 전망
  - 2030년 이후 인구감소로 농산물 소비 자체가 위축될 전망
  - 특히 고용 측면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이탈 등에 따른 경작의 대규모화, 기계화 진전으로 인해 취업자 비중 큰 폭 축소 전망

10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산업별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7.07	3.50	3.52	3.54	1.48	1.49	1.52
광업	0.09	0.02	0.02	0.02	0.01	0.01	0.01
제조업	16.27	14.36	14.38	14.42	13.21	13.30	13.45
소비재	5.86	4.39	4.41	4.45	4.10	4.15	4.25
기초소재	4.01	3.86	3.87	3.87	3.95	3.97	4.00
조립가공	6.41	6.10	6.10	6.10	5.16	5.18	5.20
SOC	7.16	7.01	7.02	7.04	6.77	6.81	6.89
서비스업	69.42	75.11	75.07	74.98	78.53	78.39	78.13
소비자	34.33	34.13	34.19	34.31	33.05	33.28	33.69
생산자	16.82	20.73	20.60	20.35	22.52	22.06	21.22
사회	18.27	20.25	20.27	20.32	22.96	23.05	23.22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제조업도 생산증가율 둔화, 기술 개발에 따른 설비 자동화, 효율화 진전으로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고용 감소 전망
  - 소비재업종에서의 고용감소가 지속, 심화될 전망이다, 대규모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조립가공 부문의 고용도 둔화이후 감소 전망
- 서비스업은 수요 확대,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한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취업자 비중이 계속 확대될 전망
  - 2030년 이후에는 성장세의 둔화와 함께 생산효율성의 증대로 고용창출력은 다소 축소될 전망
  -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비중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

##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전망〉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2.90	-2.90	-2.91	-3.29	-3.29	-3.30
광업	-5.70	-5.71	-5.73	-3.10	-3.12	-3.16
제조업	-0.06	-0.07	-0.09	-0.74	-0.75	-0.77
소비재	-0.87	-0.87	-0.86	-0.69	-0.69	-0.68
기초소재	0.38	0.37	0.34	-0.39	-0.40	-0.43
조립가공	0.32	0.30	0.27	-1.02	-1.03	-1.07
SOC	0.46	0.45	0.43	-0.57	-0.59	-0.61
서비스업	0.96	0.94	0.90	-0.31	-0.35	-0.40
소비자	0.53	0.53	0.51	-0.57	-0.58	-0.60
생산자	1.62	1.57	1.47	-0.19	-0.26	-0.40
사회	1.08	1.07	1.05	-0.05	-0.06	-0.09
전산업	0.56	0.55	0.51	-0.46	-0.49	-0.54

## 3.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필요
- 고령화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둔화 전망,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해법
-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의 출현 혹은 소규모 산업의 확대 등에 따른 관련 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인구고령화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요를 발생시키거나, 특이 수요(unusual demand)를 일상적인 수요(usual demand)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요를 소비로 연계하는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

- 고령친화 산업 등 내재화된 수요를 표면화시키는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진입규제의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도 긴요
- 산업적 발전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므로 초기단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제조업〉

-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시장개방의 폭이 커서 대부분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대외적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하지만, 수출주력 산업으로써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중요
-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측면이 강하지만 자동화, 생산비용 절감 등 가격경쟁력의 제고에 치중하면서 질적 성장,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한계성을 노정
- 양적 성장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질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
- 내수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산업은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숙련 노동력의 확대 및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규모 축소로 인해 수요 위축이 예상되며, 숙련 노동력의 이탈이 크게 우려될 전망
- 인구규모의 축소보다 숙련 노동력의 이탈이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 소비재의 질적 하락과 함께 초과수요 가능성

- 소비재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숙련 노동력의 이탈 방지 및 신규 진입 인력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
- 그 동안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에서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혁신 위주의 연구개발투자로 전환이 필요
- 가격경쟁력 우위에서 품질 및 기술 경쟁력 우위로 전환 단계에 있는 국내의 기초소재와 조립가공은 기초기술의 활용 제고, 제품화 이후 단계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
  - 비교적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들의 추격이 거세며,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에 비해 열위
  -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신제품 개발, 설계능력, 특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면에서는 상당한 격차 존재
  - 최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연구의 성과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장기에 걸친 투자와 연구 환경 조성 필요
  - 신기술의 제품화 이후 유통 및 판매를 위해 관련 서비스업계와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업 부문의 질적 향상 및 정부의 지원 및 투자 절실
  -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특허 취득을 위해 관련 서비스업과 연계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체계의 현실화를 통해 유인 제공
- 산업별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산업간 기술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유도에 한계
  - 고령화시대에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선별하

여 선택과 집중 방식의 연구개발을 유도하되 성장 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을 동시에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의 범위를 포괄화 하는 노력 요구

- 선택·집중과 확장·연계의 조화를 통해 핵심 산업 군을 선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산업간 동반 성장유도
- 제조업 내 내수주력산업과 수출주력산업 간의 불균형 해소 위한 정책마련 시급
  - 내수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반면, 수출주력 산업인 조립가공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 역할
  - 수출주력산업이 해외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내수주력산업은 국내경제 상황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큰 영향
  - 수출을 통한 성장과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의 균형을 통해 산업간 동반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경제성장 방안 마련 요구

### 〈서비스업〉

- 서비스업은 내수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에 비해 작은 개방 폭으로 인해 비교적 경쟁 상황에 노출 정도가 작았지만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중요 이슈
  - 특히, 고용의 탈공업화가 지속되면서 생산성 수준이 높은 제조업에서 낮은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 확대
  - 서비스업의 특성 상 주 생산요소인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



- 생산자 서비스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의 진전과 기업의 생산, 경영 구조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업관련 전문서비스의 아웃소싱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 확대
  -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이 작은 수준으로, 생산자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열위는 서비스 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
  - 생산자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인적 자원이 필수, 또한 다른 서비스업 부분에 비해 고용창출력은 다소 약하지만 고급 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가능
  -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여 국제 시장으로 진출 확대 방안 모색, 특히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 역할을 하는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국제 경쟁력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므로 제조업과 연계 유도
  - 환경, 삶의 질, 자원 보존, 디자인, 법률, 시험 인증 등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핵심
-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소비자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방식의 온라인화, 무인화 등이 가속되면서 과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는 추세
  - 소비형태가 유형(有形)의 재화 소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무형(無形)의 서비스 가치에 대한 소비를 즐기는 이른바 가치소비, 문화소비 등 소비 행위 자체를 즐기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
  - 또한 고령화 시대에 늘어난 고령층의 새로운 수요와 맞물려 기존

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수요 창출 가능

-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의 확대를 소비자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의 출현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노력과 지원 필요
- 소비자 서비스의 지속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내수 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산업계는 잠재 수요를 소비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사회 서비스는 공공재화의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여타 서비스와 차별화된 성격
  -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고령층과 아동 관련 사회 서비스의 내재적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할 전망
  - 산업구조의 특성상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기조 하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적 해결 방안
  - 그러나 과도한 복지지출이 요구되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인구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여 민간의 시장참여 유도 확대
  - 공공부문은 내재화되어 있는 사회 서비스 수요를 표면화 시키고 수요를 소비로 구체화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 민간부문은 사회 서비스 수요를 산업의 소비로 연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노력 필요, 또한 서비스의 수요 대상을 세분화하여 사회 서비스 영역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 〈고용정책〉

- 산업 부문별 공급 탄력성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 소비지출의 구성 변화는 상당 부분 산업구조의 변화를 유도,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력의 이동이 요구되며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과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현재 제조업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체계가 서비스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별 인적양성 체계는 차별화 될 필요
- 업종별 협회의 주도하에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인력풀 제도 검토의 필요성, 노동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형태이므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노동유통망의 도입은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 또한 고령화 시대에 숙련 노동력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 산업별 인력풀 제도와 노동유통망에 교육훈련 기능을 더해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
- 고용보호관련 규제(EPL) 완화는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 EPL의 완화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수반되었으며, 사회·복지 정책의 보완 없이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확인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대상의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관련 사회·복지 정책을 고령층 대상의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속과 관련된 효과 유

### 도 가능

- 유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을 연계하여 정책 수  
행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후생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후생증가를 유도
- 안정된 고용은 숙련 노동력의 양성과 후속 세대로의 기술과 현장  
경험 이전을 위한 선결조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적정 기간의 고용 안정 간의 균형이 중요
- 특히 고령화 시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  
는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패러  
다임에 변화가 요구
- 고용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업  
별 특성에 맞게 정리된 인력통계의 구축과 관련 산업 분야 정보시스  
템 간의 연계는 중요한 역할
- 향후 한국의 산업이 가격 경쟁력 우위에서 기술, 품질 경쟁력 우위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중요 전제
-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은 주로 교육, 훈련, 현장경험 등을 통해 이  
루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해당 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형  
태로 구성될 필요
- 교육·훈련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  
구가 녹아들어야 할 것이며, 산업계 또한 인력의 범위를 교육·훈  
련 이후가 아닌 시작단계까지를 포괄하는 인식이 필요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3절 인구구조 고령화의 산업적 파급영향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향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가속은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 약화, 부양인구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증대 그리고 이로 인한 부양세대와 피부양세대간 갈등 심화 등 경제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숙련노동력의 증가로 인한 인적자본의 축적,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 증대 등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인구구조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다양한 변화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파급영향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복잡한 형태와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파급영향을 산업부분으로 한정하여도, 그 정도와 방향성이 일률적이지 않아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즉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작용하나 연령별 수요구조의 상이, 산업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간의 대체관계 차이로 인해 고령화의 산업별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는 인구구조 이외에 소비구조, 자본축적 및 기술진보, 국제적 분업구조의 변화, 사회·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수요구조, 산업별 특성 및 생산, 교역, 고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중점을 두면서 국내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중장기 산업구조의 변화전망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내경제의 장기적 성장과정에서 수반된 산업별 성장패턴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세계경제의 발전구도와 국제적 분업구조 변화, 국내의 수요구조와 생산여건 변화 및 인구고령화의 가속을 고려하여 중장기 산업구조를 전망할 것이다. 전망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접근을 시도하여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와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산업이 겪게 될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에 개발된 KIET의 산업경제 계량모형(이하 KIET-DIMM2012)의 결과와 3가지 인구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한다.<sup>1)</sup> 특히, 인구구조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의 대상기간을 2060년까지의 초장기로 확장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계량적 분석모형의 구조 측면에서는 본 연구와 동시에 진행된 한국경제

1) 자세한 내용은 이진면 외(2012),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638을 참조.



시스템분석학회에서 개발한 거시경제계량모형<sup>2)</sup>이 KIET- DIMM2012의 거시블록을 대체하며 거시경제부문의 주요 전망치가 산업부문의 전망을 위한 주요 전제로 설정된다. 특히 거시경제 계량모형의 전망 과정에서 해외경제 환경의 변화, 국내경제의 균형 성장경로, 인구구조변화 등이 고려되므로 개별 산업부문의 전망과정에서는 인구구조변화 시나리오만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분석의 대상기간과 분석방법론에 입각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한국은행의 2010년 기준 국민계정에서 공표된 경제활동별 82개 분류, KIET-DIMM 2012의 78개 산업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대상의 산업분류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산업분류에 입각하여 산업별 성장패턴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현재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 및 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및 2장에서 분석된 국내산업의 구조적 특성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 산업의 생산, 교역, 고용 구조의 변화 가능성 및 범위를 전망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산업별 파급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변화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수행하여 비교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도출

2)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전략」이라는 대형과제에 포함되는 16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고, 동일한 성격으로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는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따른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과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계량모형이 개발됨.

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3절 인구구조 고령화의 산업적 파급영향<sup>3)</sup>

인구구조 고령화와 관련된 경제학적 연구는 주로 거시경제 분야에서 이루어 졌으며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경제 분야에서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주로 2000년대 들어 실증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령별 소비 패턴의 상이함, 생산요소의 공급 여건 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령·세대별 소비패턴은 거시경제 부문의 주된 관심사인 총량 수준의 소비와는 달리 미시경제 차원의 산업별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수요구조에 변화를 유도하지만 산업별 생산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나 투자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생산요소의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임금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일지라도 생산요소의 공급여건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반감되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산업별 노동생산성이 연령·세대별 소비패턴과 상이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3) 고령화의 산업적 파급영향은 이진면 외(2012)의 전거서 제2장 2절을 요약함.



## 제2장

### 산업구조 변화

제1절 산업분류

제2절 산업 생산구조 변화

제3절 산업 교역구조 변화

제4절 산업 고용구조 변화



# 2

## 제2장 산업구조 변화 <<

### 제1절 산업분류

산업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 대상인 산업을 분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분류는 산업구조 변화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산업분류를 통해 미시적으로 개별 산업의 구조변화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분류기준을 토대로 유사한 성격의 산업들을 통합하여 산업 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며 큰 흐름을 읽어 낼 수 있다.

한 국가의 산업분류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현재의 산업구조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청은 UN 통계국이 작성·공표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와 우리 산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통계, 정책 수립 등에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구조가 국가 경제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국가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산업분류체계는 신산업의 등장, 성장산업의 확대, 쇠퇴산업의 통·폐합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9차 개정을 기본으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10년 기준 개편에 입각한 82개 경제활동분류 및

KIET-DIMM 2012의 78개 산업분류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65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1〉 산업분류

농림어업		농림어업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금속 및 비금속 광업
제조업	소비재	식품제조업, 음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 및 의복 제조업,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복제업, 기타제조업
	기초소재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비료 및 농약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제조업
	조립가공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SOC		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소비자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주거서비스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생산자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 및 용품 임대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 및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생서비스, 사회단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SOC, 서비스업 등 대분류 기준으로 산업을 5개로 구분하였다. 농림어업은 1개, 광업은 2개, 제조업은 35개, SOC 관련 산업은 3개, 서비스업은 24개의 세부업종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업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유사한 성격의 산업을 통합하여 산업 군으로 재 구분 하였다. 제조업은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비재는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제조업 등,

기초소재는 주로 산업 생산에서 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석탄·석유 제품, 화학, 철강, 금속 등, 조립·가공은 기계, 전기, 전자, 반도체, 운송장비 제조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와 대상을 고려하여 소비자, 생산자, 사회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서비스가 최종 재화로 소비되는 소비자 서비스는 도소매, 음식, 방송, 문화, 오락 서비스 등, 서비스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중간재로 이용되는 생산자 서비스는 금융, 보험, 정보, 연구개발, 사업지원 서비스 등, 사회복지 측면을 고려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로 구분하고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의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Browning and Singleman(1978), Elfring(1988) 등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 분류를 공급자 서비스, 유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유통서비스는 최종재로서의 서비스와 중간재로서의 서비스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선행연구와 같이 서비스산업을 4개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생산자 서비스(공급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개인서비스와 유통 서비스의 유사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소비자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 제2절 산업 생산구조 변화

1990년대 한국 산업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 이전 한국 산업은 정부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과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수출에 기여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써 고도 성장기를 거쳐 온 한국 산업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이 완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성장 확대, 고용의 탈공업화 등 선진국 형 산업구조로 변화를 시작하였다. 또한 임금 상승, 아시아 금융 위기 등 한국 산업이 처한 환경 변화는 산업의 생산구조에 변화를 유도하였다.

현재 한국의 산업 생산구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상부가가치 기준으로 80%를 상회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 이후 다소 둔화되었지만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27.49%에서 2010년 30.72%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은 동기간 52.44%에서 59.81%로 증가하였다. 특히 서비스업의 비중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기간 7.37%p 증가 하였다. 제조업은 1990년대 8%, 2000년대 6%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지만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3.23%p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제조업부문이 기술 발달에 따라 상대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중증가가 성장률에 다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조업 전체의 비중은 감소되었다.

〈표 2-2〉 산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및 실질 증가율 추이

(단위 : %)

	경상비중			실질 증가율	
	1990	2000	2010	1990~2000	2000~2010
농림어업	8.31	4.39	2.47	2.72	1.58
광업	0.72	0.29	0.19	-2.19	-1.33
제조업	27.49	28.98	30.72	8.01	6.00
소비재	7.61	5.78	4.08	1.89	1.60
기초소재	9.82	9.44	10.59	8.03	3.68
조립가공	10.06	13.76	16.05	14.35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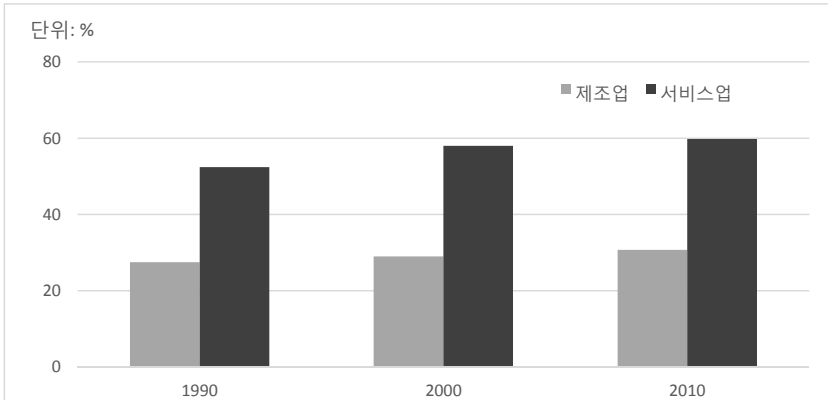


〈표 2-2〉 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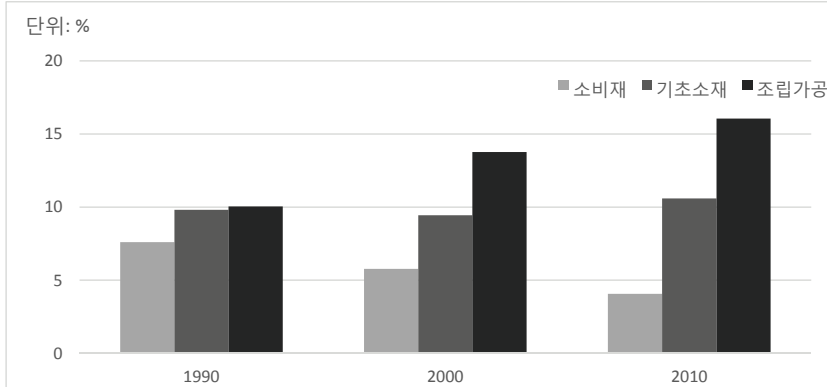
	경상비중			실질 증가율	
	1990	2000	2010	1990~2000	2000~2010
SOC	11.04	8.34	6.81	3.31	2.63
서비스업	52.44	57.99	59.81	6.77	4.07
소비자	27.44	28.90	25.55	7.68	3.33
생산자	12.30	14.81	17.01	7.74	5.40
사회	12.70	14.29	17.25	4.82	3.99
전산업	100.0	100.0	100.0	6.53	4.42

[그림 2-1] 산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현황



반면 농림어업과 SOC 관련 산업의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농림어업의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8.31%에서 2000년 4.39%, 2010년 2.47%로 감소하였다. SOC 관련 산업은 동기간 11.04%에서 6.81%로 감소하였다. 이들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며 비중 축소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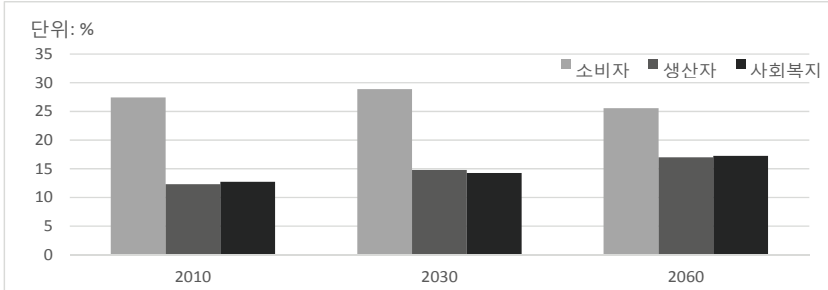
[그림 2-2]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현황



제조업 업종별 경상부가가치 비중 변화에서 소비재 산업은 감소, 기초소재 산업은 정체, 그리고 조립가공업은 성장으로 특정할 수 있다. 소비재 산업의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7.61%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4.08%로 하락하였다. 반면 조립가공 산업의 부가가치 경상비중은 동기간 10.06%에서 16.05%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비중 변화는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에서 한국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이 직면한 고임금 및 내수불황은 소비재 산업의 비중 하락을 초래했다.

세부 업종별 경상부가가치 비중 및 실질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섬유 및 의복 제조업, 가죽제품 제조업 등 소비재 산업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비재 산업의 비중 하락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소비재 산업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업 등의 기술집약적 조립가공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은 경상부가가치 비중을 감소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림 2-3]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현황



한편, 서비스업 경상부가가치 비중의 큰 폭 증가는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인한다. 생산자 서비스의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00년 14.81%, 2010년 17.01%로 증가하였다. 사회 서비스는 동기간 12.7%에서 17.25%로 증가하였다. 반면 소비자 서비스는 1990년 27.4%에서 2000년 28.9%로 증가한 후 2010년 25.6%로 감소하였다. 소비자 서비스의 비중 감소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은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주거서비스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등 소비자 서비스 관련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생산자 서비스의 성장률이 전산업 성장률을 상회하며 견조한 성장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사회 서비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 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사회 서비스 관련 업종의 성장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3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표 2-3〉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및 실질 증가율 현황

(단위 : %)

		부가가치 경상비중			부가가치 실질 증가율	
		1990	2000	2010	1990-2000	2000-2010
농림 어업	농림어업	8.31	4.39	2.47	2.72	1.58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24	0.05	0.03	-10.76	-5.75
	금속 및 비금속 광업	0.49	0.24	0.17	3.16	-0.37
제조업	식품 제조업	1.50	1.31	0.98	2.74	1.27
	음료품 제조업	0.30	0.29	0.20	6.92	0.99
	담배 제조업	0.16	0.16	0.12	4.44	1.82
	섬유 및 의복 제조업	3.18	2.08	1.34	0.47	1.37
	가죽제품 제조업	0.39	0.21	0.14	-4.39	0.98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25	0.18	0.14	0.14	2.40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81	0.75	0.47	6.35	2.07
	인쇄 및 복제업	0.31	0.27	0.24	5.14	0.1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29	0.71	0.65	13.70	4.7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0.60	0.63	0.91	13.37	9.10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0.28	0.35	0.63	15.21	9.13
	화학섬유 제조업	0.26	0.16	0.09	11.38	-4.68
	비료 및 농약 제조업	0.37	0.31	0.08	8.26	-9.48
	의약품 제조업	0.37	0.45	0.44	11.17	5.8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00	0.73	0.59	5.78	0.55
	고무, 플라스틱제품	1.03	1.09	1.33	7.66	5.2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26	0.33	0.49	13.34	13.7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50	0.83	0.47	4.16	-1.78
	철강	2.12	1.73	2.19	8.75	3.22
	비철금속	0.45	0.42	0.47	9.85	-0.06
	금속제품 제조업	1.28	1.70	2.25	5.87	3.45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1.00	1.32	1.28	11.88	4.99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0.80	1.02	1.25	12.08	10.53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1.67	0.35	0.25	-0.31	5.24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0.44	1.50	1.42	26.86	12.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0.62	1.27	0.26	32.06	-2.20
	전기장비 제조업	0.78	1.15	1.53	14.92	8.06
	디스플레이	0.24	0.73	2.11	30.75	23.47
	반도체	0.31	1.57	2.01	37.73	17.71
	전자부품	0.56	0.67	0.50	19.18	5.75
	정밀기기 제조업	0.39	0.40	0.52	12.63	10.78
	자동차 제조업	2.37	2.37	2.87	11.50	8.74
	선박 제조업	0.75	1.24	1.86	13.93	7.3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3	0.18	0.20	11.41	3.93	
기타 제조업	0.71	0.53	0.44	0.48	3.89	

〈표 2-3〉 계속

(단위 : %)

		부가가치 경상비중			부가가치 실질 증가율	
		1990	2000	2010	1990-2000	2000-2010
S O C	전기업	1.70	1.79	1.08	10.66	5.75
	가스, 증기, 수도	0.25	0.55	0.61	8.27	5.09
	건설업	9.09	6.00	5.12	2.29	1.85
서 비 스 업	도소매업	11.93	9.60	8.78	6.37	2.90
	음식점 및 숙박업	2.68	3.00	2.61	7.46	2.29
	운수 및 보관업	4.64	4.34	3.89	7.45	4.29
	금융 및 보험업	5.23	5.67	6.26	8.25	6.04
	주거서비스업	3.52	6.85	5.83	7.86	3.02
	부동산서비스업	2.04	2.35	1.89	5.78	2.34
	장비 및 용품 임대업	0.79	0.19	0.23	0.13	9.23
	출판업	0.16	0.32	0.22	14.54	-5.69
	영화	0.04	0.12	0.14	7.28	4.08
	방송업	0.29	0.34	0.34	9.29	6.04
	통신업	1.86	2.17	1.43	21.62	7.11
	정보서비스업	0.59	1.51	1.83	14.27	7.60
	전문서비스업	1.65	2.01	2.58	6.31	2.50
	연구개발업	1.10	1.21	2.15	3.28	9.68
	사업지원 서비스업	0.90	1.87	2.08	15.09	5.38
	공공행정 및 국방	5.83	6.15	6.89	4.91	3.68
	교육서비스업	4.42	4.75	5.57	3.73	3.62
	의료 및 보건업	1.69	2.09	3.28	6.35	5.21
	사회복지 서비스업	0.18	0.39	0.56	6.87	4.54
	문화서비스업	0.13	0.17	0.23	6.91	5.79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0.69	0.68	0.81	12.78	6.05
	위생서비스	0.29	0.48	0.55	6.20	4.40
	개인 서비스업	1.50	1.30	1.27	7.86	3.84
	사회단체	0.29	0.43	0.41	5.36	3.87
	전산업	100.0	100.0	100.0	6.53	4.42

### 제3절 산업 교역구조 변화

WTO 출범과 FTA 저변확대에 대응하며 한국 산업은 급격한 교역환경 변화에 노출되었다. 수출 지향형 경제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국내 산업의 생산과 수입,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

소평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산업 교역구조의 변화는 우리 산업의 변화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수출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압도적이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1990년 0.91%에서 2010년 0.12%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한국 농림어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된데 기인한다.

〈표 2-4〉 산업별 수출·입 경상비중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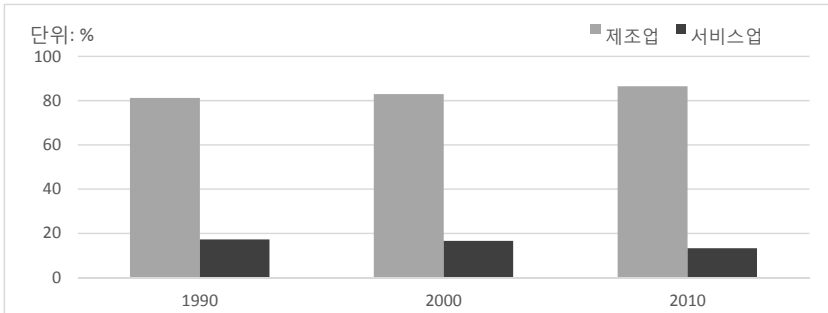
	수출 경상비중			수입 경상비중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농림어업	0.91	0.29	0.12	4.73	2.15	1.79
광업	0.32	0.07	0.02	11.84	17.29	22.97
제조업	81.22	82.93	86.50	75.13	67.56	61.46
소비재	28.23	12.82	5.56	9.68	7.96	7.81
기초소재	14.71	17.48	22.87	30.34	22.94	27.50
조립가공	38.28	52.63	58.07	35.11	36.65	26.15
SOC	0.26	0.12	0.07	0.02	0.08	0.03
서비스업	17.29	16.59	13.28	8.27	12.92	13.75
소비자	16.31	14.76	10.46	5.34	7.97	6.61
생산자	0.71	1.77	2.76	2.24	4.39	6.38
사회	0.27	0.07	0.06	0.69	0.56	0.76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1990년 81.22%에서 2010년 86.5%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부문은 수입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75.13%에서 2010년 61.46%로 하락하였다. 이는 최종재 생산과정에서 중간재의 국산화율 상승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로 산업의 생산 원료나 에너지를 수입하는 광업의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업의 수입비중은 1990년 11.84%에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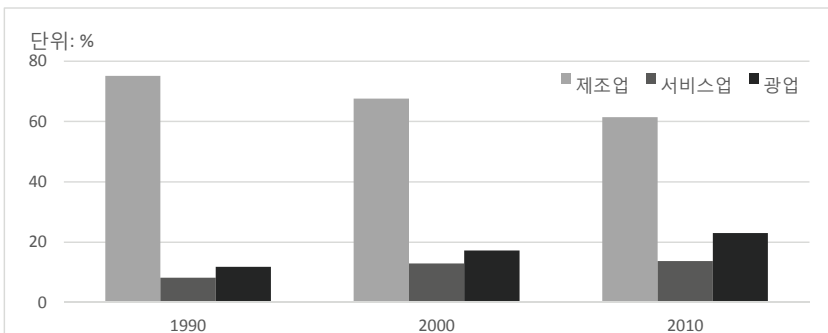
년 21.65%로 큰 폭 증가하였다. 우리 산업의 생산 증대에 따른 생산 원료와 에너지 수요 확대가 광업 부분 수입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4] 산업별 수출 경상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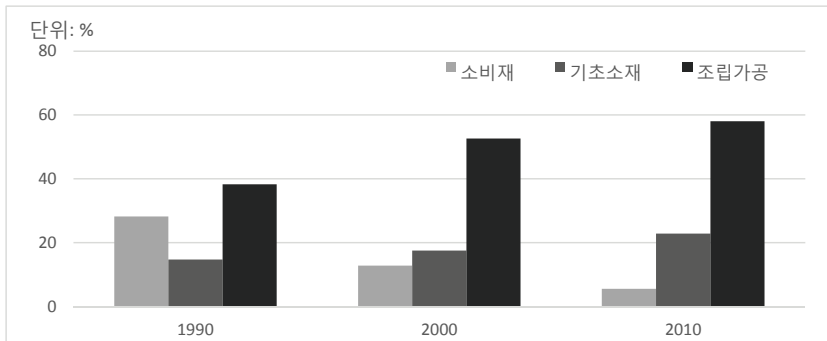
서비스업이 전체 수출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990년 약 17.29%에서 2010년 약 13.28%에 이르면서 수출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비중은 동기간 8.27%에서 13.75%로 증가하여 서비스업 부문에서 무역수지 적자 폭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5] 산업별 수입 경상비중 현황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8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에서 수출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업종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재 산업의 수출 비중은 1990년 28.23%를 기록하여 수출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0년 5.56%로 축소되었다. 반면, 조립가공 산업은 동기간 38.28%에서 58.07%로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기초소재 산업도 동기간 14.71%에서 22.87%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 구조의 변화는 생산 구조의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소비재 산업 위주의 경공업 중심 구조에서 기초소재, 조립가공 산업 등 중화학,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의 수출에서 기초소재, 조립가공 산업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그림 2-6] 제조업 업종별 수출 경상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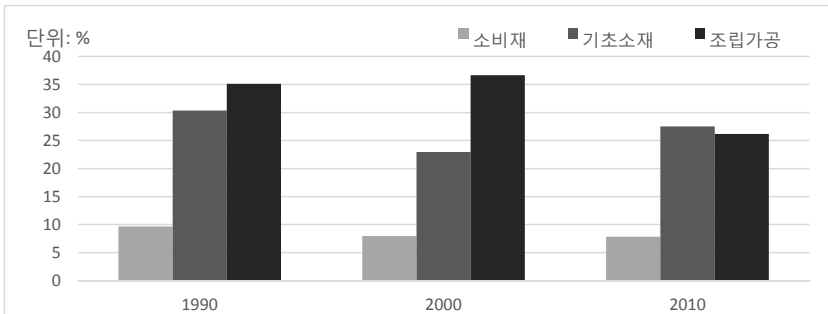


제조업 업종별 수입구조 변화에서는 조립가공 산업의 수입비중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립가공 산업의 수입비중은 1990년에 35.11%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00년에 36.65%로 소폭 증가한 후 2010년 26.15%로 급락하였다. 소비재 산업은 1990년에 약 9.68%의 수입비중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7.81%로 소폭 하락하였다. 기초소



재 산업의 수입비중은 1990년에 약 30.34%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며 2010년에 27.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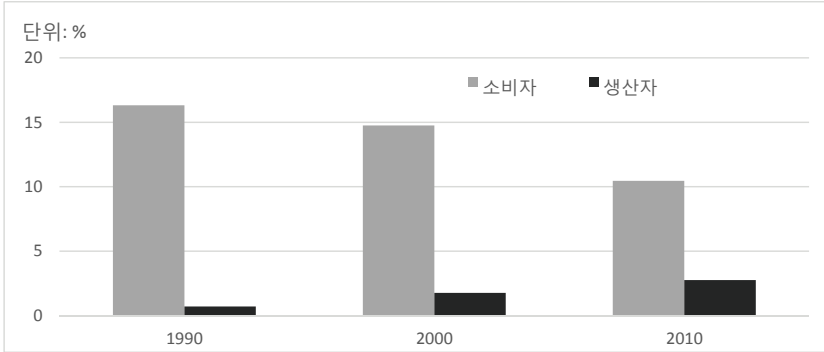
[그림 2-7] 제조업 업종별 수입 경상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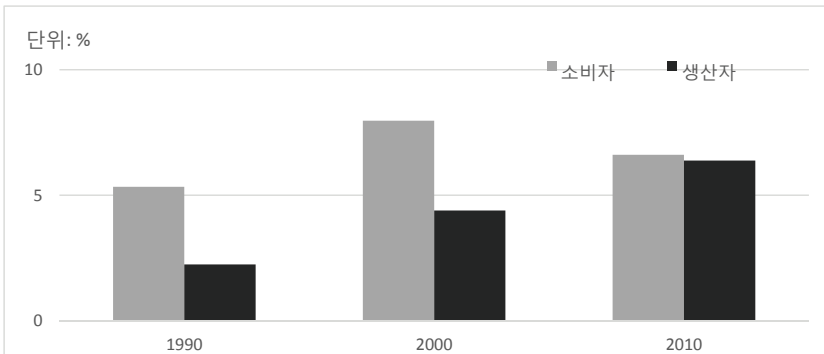
서비스업 업종별 수출 비중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소비자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내수 불황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2000년 이후 소비자 서비스의 수입비중도 감소하였다.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 수출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수입비중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 서비스의 수입비중 확대는 서비스업 부문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 부문의 수입비중과 생산비중 확대를 통해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산업의 품질제고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40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그림 2-8] 서비스업 업종별 수출 경상비중 현황



[그림 2-9] 서비스업 업종별 수입 경상비중 현황



(표 2-5) 세부 업종별 수출·입 경상비중 현황

(단위 : %)

		수출 경상비중			수입 경상비중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농림 어업	농림어업	0.91	0.29	0.12	4.73	2.15	1.79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00	0.00	0.00	9.88	15.99	19.98
	금속 및 비금속 광업	0.32	0.07	0.02	1.97	1.30	2.99
제조업	식품품 제조업	2.30	1.07	0.79	3.45	2.69	2.61
	음료품 제조업	0.09	0.11	0.11	0.31	0.27	0.19
	담배 제조업	0.02	0.08	0.14	0.06	0.11	0.05
	섬유 및 의복 제조업	19.83	9.06	3.31	2.68	2.24	2.21
	가죽제품 제조업	4.13	1.12	0.34	0.43	0.38	0.81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17	0.04	0.01	0.52	0.52	0.32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62	0.89	0.54	1.87	1.24	0.81
	인쇄 및 복제업	0.00	0.03	0.02	0.01	0.09	0.06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2.39	5.29	6.32	7.21	5.46	6.28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0.75	1.58	3.06	4.27	2.43	3.45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1.00	2.13	3.17	1.79	0.86	0.79
	화학섬유 제조업	0.28	0.49	0.44	0.25	0.18	0.11
	비료 및 농약 제조업	0.49	0.27	0.10	0.56	0.59	0.22
	의약품 제조업	0.24	0.28	0.24	0.45	0.69	0.88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26	1.03	0.97	2.28	2.33	2.12
	고무, 플라스틱제품	1.48	1.42	1.75	0.64	0.74	1.56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24	0.25	0.12	1.11	0.63	1.07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52	0.16	0.17	0.60	0.32	0.54
	철강	3.06	2.35	2.88	5.23	4.01	5.54
	비철금속	1.24	1.37	2.11	4.72	4.00	3.52
	금속제품 제조업	1.76	0.87	1.54	1.24	0.70	1.40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1.06	2.21	2.66	4.84	3.14	2.75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1.31	1.83	3.13	7.01	4.32	3.92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1.11	2.09	0.89	0.07	0.26	0.15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3.46	8.54	6.66	2.68	6.77	1.9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7.59	4.42	0.94	3.74	2.28	1.28
	전기장비 제조업	1.11	1.36	2.84	1.53	2.26	2.41
	디스플레이	3.31	5.77	10.37	0.75	1.03	0.64
	반도체	7.92	8.52	7.96	6.28	6.50	4.54
	전자부품	1.68	2.55	1.26	1.87	3.03	1.54
	정밀기기 제조업	0.97	0.87	1.06	2.85	3.56	2.65
	자동차 제조업	3.37	6.49	9.59	1.13	0.96	1.76
	선박 제조업	5.09	7.66	10.37	1.05	1.72	1.4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28	0.32	0.34	1.32	0.84	1.07
	기타 제조업	1.09	0.40	0.31	0.33	0.42	0.75

42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표 2-5〉 계속

(단위 : %)

	수출 경향비중			수입 경향비중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S 전기업	0.04	0.02	0.01	0.01	0.01	0.02	
O 가스, 증기, 수도	0.03	0.00	0.00	0.01	0.01	0.01	
C 건설업	0.19	0.09	0.06	0.00	0.06	0.00	
서비스업	도소매업	4.79	2.43	1.97	0.60	0.55	0.45
	음식점 및 숙박업	2.35	2.10	0.95	1.14	2.36	1.44
	운수 및 보관업	8.16	9.27	7.06	2.84	3.83	3.82
	금융 및 보험업	0.27	0.29	0.44	0.40	0.45	0.57
	주거서비스업	0.04	0.04	0.06	0.05	0.21	0.15
	부동산서비스업	0.03	0.02	0.02	0.08	0.11	0.13
	장비 및 용품 임대업	0.06	0.02	0.15	0.06	0.22	0.28
	출판업	0.24	0.11	0.07	0.24	0.21	0.18
	영화	0.12	0.13	0.03	0.11	0.19	0.10
	방송업	0.00	0.01	0.04	0.01	0.04	0.05
	통신업	0.47	0.16	0.12	0.22	0.22	0.23
	정보서비스업	0.02	0.15	0.17	0.39	1.15	0.47
	전문서비스업	0.17	0.69	0.71	1.31	1.91	1.90
	연구개발업	0.00	0.00	0.45	0.00	0.00	1.59
	사업지원 서비스업	0.17	0.61	0.81	0.00	0.55	1.44
	공공행정 및 국방	0.25	0.00	0.00	0.01	0.00	0.12
	교육서비스업	0.01	0.03	0.03	0.66	0.54	0.58
	의료 및 보건업	0.01	0.03	0.01	0.02	0.02	0.03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1
	문화서비스업	0.01	0.06	0.04	0.01	0.05	0.09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0.08	0.15	0.06	0.08	0.24	0.07
	위생서비스	0.00	0.00	0.01	0.00	0.00	0.00
	개인 서비스업	0.05	0.29	0.06	0.04	0.05	0.04
	사회단체	0.00	0.00	0.00	0.01	0.01	0.02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제4절 산업 고용구조 변화

고용비중과 취업자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높은 연관관계에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산업별 성장과정이나 생산성 변화의 상이함에 따라 산업별로 차별화된 노동수요를

보인다. 즉 특정 산업의 성장이 지속되었더라도 생산성의 향상이 설비투자 생산 공정 효율화에 치중된 경우 고용창출력은 부가가치 증가에 미치지 못하며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별 특성으로 인해 1990년 이후 고용구조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2-6〉 산업별 취업자 비중 및 증가율 현황

(단위 : %)

	고용 비중			실질 증가율	
	1990	2000	2010	1990~2000	2000~2010
농림어업	17.26	12.33	7.07	-1.78	-4.28
광업	0.53	0.13	0.09	-11.69	-2.92
제조업	25.70	17.49	16.27	-2.25	0.47
소비재	14.79	8.36	5.86	-4.05	-2.34
기초소재	5.10	3.61	4.01	-1.88	2.27
조립가공	5.81	5.52	6.41	1.07	2.71
SOC	7.04	6.96	7.16	1.46	1.48
서비스업	49.47	63.09	69.42	4.08	2.17
소비자	31.00	37.07	34.33	3.41	0.42
생산자	7.92	11.74	16.82	5.66	4.90
사회	10.55	14.28	18.27	4.71	3.72
전산업	100.0	100.0	100.0	1.58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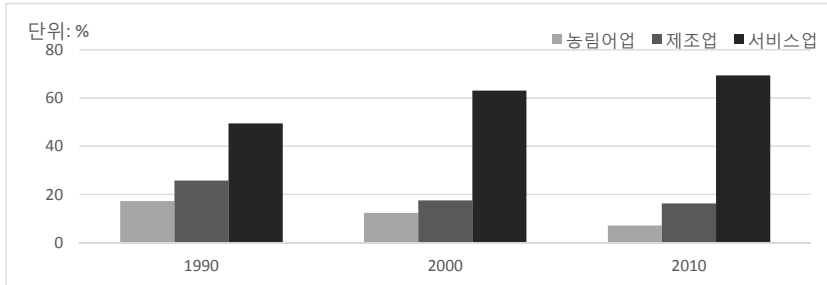
농림어업부문 고용비중은 1990년 17.26%에서 2010년 7.07%로 지난 20년간 절반 이상 축소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임금소득이 높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였으며, 동시에 기계화, 규모화를 통해 농림어업 자체의 고용 창출력도 감소한데 기인한다.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90년 25.7%였으나, 2010년 16.27%로 감소했다. 비교적 노동 집약도가 높은 소비재 산업의 생산 감소와 함께 제조업 전반에 걸친 생산 공정 자동화율 향상, 기술혁신에 의한 고용대체 확대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큰 폭으로

#### 4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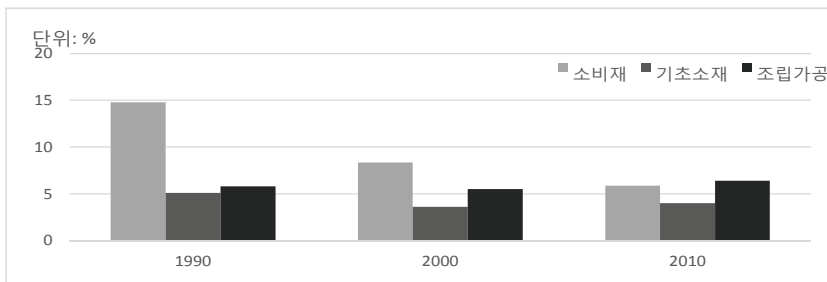
감소하였다.

[그림 2-10] 산업별 취업자 비중 현황



소비재 산업의 고용 비중이 1990년 14.79%에서 2010년 5.86%로 하락하였으며, 기초소재 산업의 고용 비중도 동기간 5.1%에서 4.01%로 축소되었다. 반면 조립가공 산업의 고용 비중이 1990년 5.81%에서 2010년 약 6.41%로 증가하였다. 조립가공 산업의 고용창출력은 부가가치 측면의 생산과 수출 비중 증가 폭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조립가공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소비재 산업의 급격한 고용 비중 감소와 조립가공 산업의 미미한 고용 비중 증가로 인해 제조업 전체의 고용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11]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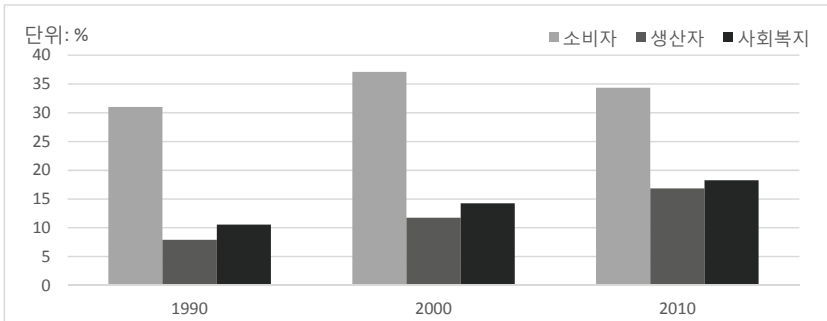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분이 서비스업으로 흡수되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1990년 49.47%에서 2010년에는 69.42%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급격한 노동력 이동에 따른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비중 증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서비스의 고용 비중이 1990년 31.00%에서 2005년 37.1%로 증가한 후 2010년 34.33%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는 소비자 서비스의 성장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소매, 음식 및 숙박 등에서 자영업의 진출이 확대되어 공급이 초과되었지만 국내 소비 수요가 한계에 이르며 산업 생산이 위축된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의 고용 비중은 1990년 각각 7.92%, 10.55%에서 2010년 16.82%와 18.27%로 증가하였다.

[그림 2-12]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비중 현황



46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표 2-7〉 세부 업종별 취업자 비중 및 증가율 현황

(단위 : %)

		고용 비중			취업자 증가율	
		1990	2000	2010	1990-2000	2000-2010
농림 어업	농림어업	17.26	12.33	7.07	-1.78	-4.28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18	0.04	0.02	-12.94	-5.77
	금속 및 비금속 광업	0.35	0.09	0.07	-11.11	-1.93
제조업	식품 제조업	2.28	1.53	1.38	-2.38	0.16
	음료품 제조업	0.58	0.27	0.15	-5.98	-4.68
	담배 제조업	0.06	0.02	0.02	-7.09	0.01
	섬유 및 의복 제조업	4.86	2.71	1.48	-4.17	-4.76
	가죽제품 제조업	2.81	0.48	0.22	-14.91	-6.55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52	0.18	0.13	-8.85	-1.69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40	0.33	0.29	-0.31	-0.07
	인쇄 및 복제업	0.22	0.31	0.37	5.13	3.15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14	0.09	0.08	-3.35	0.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0.37	0.23	0.18	-2.92	-1.50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0.08	0.07	0.09	-0.35	4.47
	화학섬유 제조업	0.19	0.10	0.03	-4.37	-10.87
	비료 및 농약 제조업	0.06	0.06	0.05	1.65	-0.34
	의약품 제조업	0.49	0.26	0.18	-4.66	-2.3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45	0.26	0.28	-3.73	1.71
	고무, 플라스틱제품	0.76	0.70	0.87	0.73	3.4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16	0.11	0.12	-2.29	1.7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79	0.40	0.30	-5.18	-1.50
	철강	0.46	0.25	0.31	-4.48	3.47
	비철금속	0.42	0.30	0.32	-1.70	1.80
	금속제품 제조업	0.73	0.78	1.20	2.23	5.64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0.75	0.69	0.78	0.79	2.45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0.62	0.67	0.83	2.34	3.39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0.29	0.22	0.11	-1.25	-5.11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0.28	0.36	0.48	4.23	3.9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0.22	0.19	0.08	0.00	-7.07
	전기장비 제조업	0.55	0.70	0.79	3.95	2.39
	디스플레이	0.10	0.15	0.25	5.69	6.51
	반도체	0.33	0.36	0.40	2.68	2.21
	전자부품	0.53	0.28	0.35	-4.64	3.45
	정밀기기 제조업	0.27	0.31	0.37	2.70	3.24
	자동차 제조업	1.51	1.16	1.41	-1.00	3.16
	선박 제조업	0.26	0.34	0.47	4.28	4.4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8	0.08	0.07	0.90	0.67	
기타 제조업	3.08	2.54	1.82	-0.37	-2.12	



〈표 2-7〉 계속

(단위 : %)

		고용 비중			취업자 증가율	
		1990	2000	2010	1990-2000	2000-2010
S O C	전기업	0.29	0.30	0.23	1.97	-1.58
	가스, 증기, 수도	0.13	0.16	0.13	3.94	-0.85
	건설업	6.62	6.49	6.79	1.39	1.65
서 비 스 업	도소매업	14.08	16.45	14.53	3.17	-0.06
	음식점 및 숙박업	4.15	7.12	6.90	7.22	0.88
	운수 및 보관업	5.02	5.61	5.80	2.72	1.54
	금융 및 보험업	2.92	4.42	3.41	5.87	-1.40
	주거서비스업	0.00	0.00	0.00	-	-
	부동산서비스업	1.96	1.59	2.14	-0.50	4.26
	장비 및 용품 임대업	0.09	0.21	0.30	11.25	4.60
	출판업	0.52	0.56	0.31	2.43	-4.54
	영화	0.03	0.17	0.19	21.12	2.52
	방송업	0.21	0.17	0.17	-0.32	0.82
	통신업	0.63	0.76	0.76	3.60	1.11
	정보서비스업	0.08	1.17	1.47	32.31	3.51
	전문서비스업	2.18	2.12	3.52	1.30	6.48
	연구개발업	0.19	0.92	1.80	18.86	8.25
	사업지원 서비스업	0.51	1.32	4.18	11.79	13.59
	공공행정 및 국방	3.98	4.25	4.22	2.25	1.14
	교육서비스업	4.01	5.82	7.15	5.42	3.31
	의료 및 보건업	1.13	2.17	2.98	8.45	4.48
	사회복지 서비스업	0.15	0.41	2.33	12.30	20.54
	문화서비스업	0.35	0.57	0.56	6.82	0.98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0.44	0.83	1.00	8.20	3.10
위생서비스	0.27	0.41	0.55	5.96	4.32	
개인 서비스업	5.59	4.82	4.12	0.09	-0.39	
사회단체	1.02	1.24	1.04	3.64	-0.58	
전산업	100.0	100.0	100.0	1.58	1.20	





## 제3장

### 중장기 산업구조전망

제1절 전망절차

제2절 산업 생산구조 전망

제3절 산업 교역구조 전망

제4절 산업 고용구조 전망



# 3

## 중장기 산업구조전망 <<

### 제1절 전망절차

산업구조의 중장기적 변화와 그 과정에서 인구고령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구변화와 해외경제의 환경변화 및 국내의 거시경제부문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미시경제부문에서 개별 산업의 성장패턴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산업연구원의 KIET-DIMM2012에 접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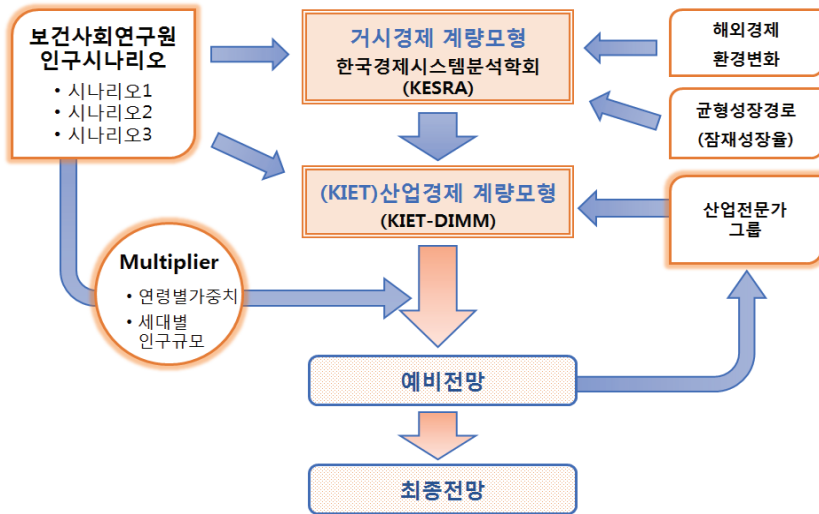
우선 인구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해외경제의 환경변화, 국내의 거시경제 부문에 대한 전망은 본 연구와 동시에 진행된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의 거시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저출산초고령화의 거시 경제적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총수요·총공급, 노동수급, 재정복지의 3개 부문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시경제계량모형을 개발하여 경제성장과 총량적 측면에서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및 고용에 대한 장기 전망을 수행하였다.<sup>4)</sup> 한편, 개별산업의 구조변화 뿐만 아니라 변화의 범위와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미시경제부문에 대한 전망은 KIET-DIMM2012<sup>5)</sup>에 입각하여 인구

4)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따른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참조.

5) 자세한 내용은 이진면 외(2012),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산업연구원

변화가 개별산업의 생산, 수출과 수입,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승수(multiplier)를 도출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승수는 인구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편차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나리오 1에 입각한 개별산업의 생산, 수출과 수입 및 고용에 대한 전망치 대비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에 입각한 전망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3-1] 전망절차 흐름도



상기의 승수를 활용하여 개별 산업에 대한 1차적인 예비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산업별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전망치를 확정하는 2단계 전망절차를 거쳤다. 단기 전망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며 과거의 추이와 경제변수 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전망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장기 전망을 위해서는 과거 산업의 성장경로와 추이뿐만 아니

연구보고서 2012-638을 참조.

라 다양한 분석 및 전망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형에 의해 도출된 전망치에는 각 산업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친 정성적 분석과 개별 산업의 현실 및 성장 가능성을 담아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모형에 의한 예비전망,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및 수용 등 일련의 과정은 일회적인 과정이 아니며 수차례의 반복과정을 통해 최종 전망치를 확정하는 수렴과정을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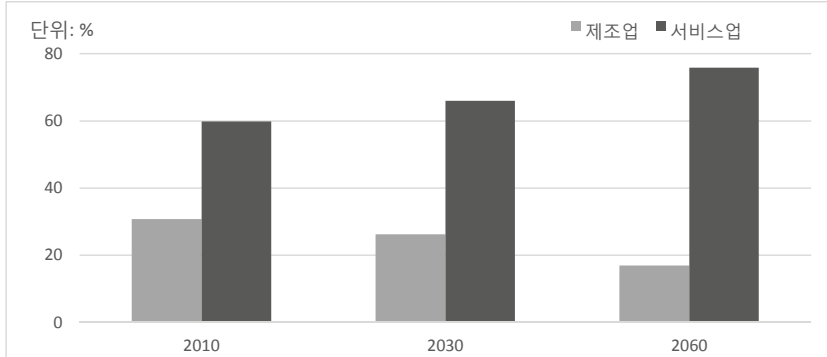
## 제2절 산업 생산구조 전망

향후 부가가치 기준으로 바라본 국내산업의 생산구조는 농림어업과 광업 및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농림어업과 광업은 전산업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가운데 203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전산업 대비 비중은 계속 축소될 전망이다. 농림어업의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 2.47%에서 인구변화의 고위 시나리오를 기준할 경우 2030년 1.55%, 2060년 0.91%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기간 광업은 0.19에서 0.1%로 축소될 전망이다.

SOC 관련 산업은 경제성장이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인구규모의 축소가 가시화됨에 따라 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생산 증가율의 둔화와 함께 전산업 대비 경상부가가치 비중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 산업별 경상부가가치 비중 전망



제조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R&D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술개발로 인한 제조업 부문의 상대가격 하락은 전산업 대비 경상부가가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제조업의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 30.72%에서 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26.25%, 2060년 16.94%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전산업 대비 비중은 2010년 59.81%에서 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65.97%, 2060년 75.89%로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국내산업 구조는 전반적으로 생산의 탈공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이행되는 과정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 산업별 경상 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2.47	1.55	1.55	1.55	0.91	0.91	0.90



〈표 3-1〉 계속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광업	0.19	0.15	0.15	0.15	0.10	0.10	0.10
제조업	30.72	26.25	26.27	26.32	16.94	16.99	17.07
소비재	4.08	2.55	2.56	2.56	1.23	1.23	1.24
기초소재	10.59	8.21	8.21	8.22	4.64	4.65	4.67
조립가공	16.05	15.49	15.51	15.54	11.07	11.10	11.17
SOC	6.81	6.08	6.07	6.06	6.16	6.15	6.12
서비스업	59.81	65.97	65.96	65.92	75.89	75.86	75.80
소비자	25.55	25.69	25.69	25.69	26.49	26.49	26.49
생산자	17.01	21.16	21.18	21.21	27.06	27.12	27.24
사회	17.25	19.11	19.09	19.02	22.34	22.25	22.07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내 세부업종별로는 조립가공이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소비재와 기초소재는 둔화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규모 감소가 의·식·주 관련 수요를 위축시킴에 따라 소비재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섬유 및 의복, 가축제품 등은 후발 개도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열위에 위치함에 따라 생산증가의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재에서 담배 제조업,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복제업 등의 성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0.23	0.20	0.13	-1.23	-1.27	-1.34
광업	0.72	0.70	0.64	-0.82	-0.86	-0.92
제조업	3.21	3.18	3.13	1.39	1.36	1.30
소비재	2.16	2.14	2.09	1.08	1.05	1.00
기초소재	2.32	2.30	2.24	1.29	1.25	1.19
조립가공	3.94	3.92	3.86	1.49	1.46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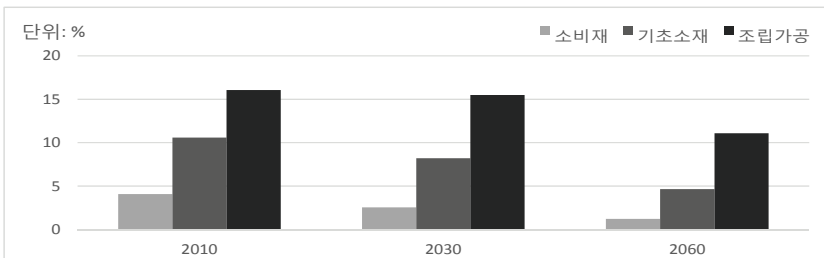
〈표 3-2〉 계속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SOC	1.98	1.95	1.88	0.62	0.58	0.51
서비스업	3.46	3.43	3.37	1.68	1.64	1.57
소비자	3.21	3.18	3.12	1.28	1.24	1.18
생산자	4.11	4.09	4.03	2.11	2.09	2.03
사회	3.14	3.11	3.03	1.69	1.64	1.56
전산업	3.23	3.20	3.14	1.51	1.48	1.41

기초소재는 전방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강업의 경우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철강다소비 제조업의 성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업종은 향후 전방산업의 성장둔화와 함께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경쟁력 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의 경쟁력 향상은 비단 철강업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업종 등 다수의 기초소재 업종에서 두드러지며 관련 업종의 국내생산을 둔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초소재에서 비료 및 농약 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비철금속 등의 성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의약품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의약품의 국내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전망



조립가공업에서 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정보화가 지속되고 글로벌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중국대만 등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며 추격하는 상황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기계 산업은 자본집약적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국내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독일 등 기계분야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에서 열위에 존재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범용기계류에서 고부가가치 기계류의 생산으로의 전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산업도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국내 신규수요 창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해외 거점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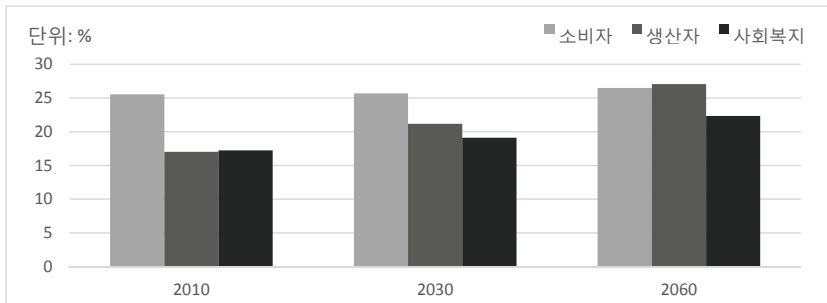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는 소비재와 기초소재 산업의 부가가치 경상비중은 더욱 큰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격차는 제조업 내 산업간 성장불균형을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원활한 노동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립가공업에 비해 비교적 노동 집약적인 소비재 산업의 성장은 더 큰 둔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서비스업 내 세부산업별로는 소비자 서비스의 성장이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면서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정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큰 폭의 비중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경상부가가치 비중은 2060년 소비자 서비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 서비스의 성장은 지식기반 창조경제의 진전과 기업의 생산, 경영 구조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업의 아웃소싱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금융보험 부문의 위험관리수요 증가도 생산자 서비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장비 및 용품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서비스는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과 아동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 의료 및 보건업, 사회단체, 위생 서비스 등이 사회 서비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 내수업종인 소비자 서비스는 내수 수요 확대의 한계에 다다르며 성장은 둔화되고, 경상부가가치의 비중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제공방식이 온라인화, 무인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소비행태가 무형의 가치를 즐기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3-4]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전망



<표 3-3>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 농림어업	2.47	1.55	1.55	1.55	0.91	0.91	0.90
어광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03	0.02	0.02	0.02	0.04	0.04	0.04
업 금속 및 비금속 광업	0.17	0.13	0.13	0.13	0.07	0.07	0.07

〈표 3-3〉 계속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0.98	0.49	0.49	0.49	0.19	0.19	0.19
	음료품 제조업	0.20	0.20	0.20	0.20	0.15	0.15	0.15
	담배 제조업	0.12	0.08	0.08	0.08	0.03	0.03	0.03
	섬유 및 의복 제조업	1.34	0.99	0.99	0.99	0.55	0.56	0.56
	가죽제품 제조업	0.14	0.13	0.13	0.13	0.09	0.09	0.09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14	0.06	0.06	0.06	0.02	0.02	0.02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47	0.23	0.23	0.23	0.05	0.05	0.05
	인쇄 및 복제업	0.24	0.08	0.08	0.08	0.01	0.01	0.0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65	0.48	0.48	0.48	0.12	0.12	0.13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0.91	0.60	0.60	0.60	0.17	0.17	0.17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0.63	0.41	0.41	0.41	0.17	0.17	0.17
	화학섬유 제조업	0.09	0.07	0.07	0.07	0.05	0.05	0.05
	비료 및 농약 제조업	0.08	0.02	0.02	0.02	0.00	0.00	0.00
	의약품 제조업	0.44	0.50	0.50	0.50	0.46	0.46	0.46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59	0.54	0.55	0.55	0.39	0.39	0.39
	고무, 플라스틱제품	1.33	1.32	1.32	1.32	0.89	0.90	0.9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49	0.22	0.22	0.22	0.14	0.14	0.14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47	0.31	0.31	0.31	0.09	0.09	0.09
	철강	2.19	1.72	1.72	1.72	0.96	0.96	0.97
	비철금속	0.47	0.28	0.28	0.28	0.10	0.10	0.10
	금속제품 제조업	2.25	1.75	1.75	1.74	1.11	1.11	1.11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1.28	1.54	1.54	1.55	1.34	1.34	1.35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1.25	1.73	1.74	1.74	1.90	1.92	1.94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0.25	0.12	0.12	0.12	0.03	0.03	0.03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1.42	1.57	1.57	1.57	0.98	0.98	0.99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0.26	0.12	0.12	0.12	0.04	0.04	0.04
	전기장비 제조업	1.53	0.89	0.89	0.90	0.27	0.27	0.27
	디스플레이	2.11	1.46	1.46	1.46	0.45	0.45	0.45
	반도체	2.01	1.99	1.99	1.99	1.16	1.16	1.16
	전자부품	0.50	0.46	0.46	0.46	0.24	0.24	0.24
	정밀기기 제조업	0.52	0.56	0.56	0.56	0.36	0.36	0.36
	자동차 제조업	2.87	2.88	2.88	2.89	2.29	2.30	2.30
	선박 제조업	1.86	1.98	1.98	1.99	1.82	1.83	1.8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20	0.20	0.20	0.20	0.18	0.18	0.18	
기타 제조업	0.44	0.29	0.29	0.29	0.14	0.14	0.14	
S 전기업	1.08	1.05	1.06	1.06	0.98	0.98	0.99	
O 가스, 증기, 수도	0.61	0.66	0.66	0.66	0.54	0.54	0.54	
C 건설업	5.12	4.36	4.36	4.34	4.63	4.62	4.59	

〈표 3-3〉 계속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서비스업	도소매업	8.78	8.95	8.95	8.95	8.33	8.32	8.32
	음식점 및 숙박업	2.61	2.51	2.50	2.49	2.79	2.77	2.74
	운수 및 보관업	3.89	4.11	4.12	4.12	4.39	4.40	4.42
	금융 및 보험업	6.26	7.05	7.07	7.11	8.81	8.88	9.02
	주거서비스업	5.83	5.47	5.48	5.49	5.89	5.90	5.93
	부동산서비스업	1.89	1.99	1.99	1.99	1.86	1.86	1.85
	장비 및 용품 임대업	0.23	0.30	0.30	0.30	0.39	0.39	0.39
	출판업	0.22	0.18	0.18	0.18	0.13	0.13	0.13
	영화	0.14	0.19	0.19	0.19	0.23	0.23	0.23
	방송업	0.34	0.42	0.42	0.42	0.50	0.50	0.50
	통신업	1.43	1.30	1.30	1.30	1.20	1.20	1.21
	정보서비스업	1.83	2.26	2.26	2.26	2.83	2.83	2.82
	전문서비스업	2.58	3.28	3.28	3.27	3.96	3.95	3.93
	연구개발업	2.15	3.67	3.67	3.68	6.14	6.15	6.18
	사업지원 서비스업	2.08	2.61	2.61	2.60	3.07	3.06	3.04
	공공행정 및 국방	6.89	6.92	6.90	6.87	7.61	7.57	7.48
	교육서비스업	5.57	5.59	5.58	5.55	5.48	5.45	5.39
	의료 및 보건업	3.28	4.70	4.69	4.68	6.89	6.87	6.84
	사회복지 서비스업	0.56	0.93	0.93	0.93	1.45	1.45	1.45
	문화서비스업	0.23	0.34	0.34	0.34	0.57	0.57	0.57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0.81	0.92	0.92	0.92	1.15	1.15	1.15	
위생서비스	0.55	0.53	0.53	0.52	0.53	0.52	0.52	
개인 서비스업	1.27	1.30	1.30	1.30	1.31	1.31	1.31	
사회단체	0.41	0.46	0.46	0.46	0.39	0.39	0.39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4〉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실질 증가율 전망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농림어업	0.23	0.20	0.13	-1.23	-1.27	-1.3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2.28	2.24	2.16	1.94	1.90	1.82
	금속 및 비금속 광업	0.43	0.41	0.36	-1.95	-1.98	-2.03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70	1.67	1.61	0.79	0.75	0.69
	음료품 제조업	3.70	3.68	3.62	1.16	1.13	1.07
	담배 제조업	1.37	1.34	1.29	-1.09	-1.12	-1.18
	섬유 및 의복 제조업	3.24	3.22	3.18	1.64	1.62	1.57
	가죽제품 제조업	4.19	4.16	4.10	1.45	1.41	1.35

(표 3-4) 계속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제조업 (계속)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36	0.33	0.28	-1.23	-1.25	-1.31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4	-1.27	-1.32	-3.48	-3.51	-3.57
	인쇄 및 복제업	-3.77	-3.80	-3.86	-4.92	-4.95	-5.02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48	0.46	0.41	-2.02	-2.04	-2.0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1.92	1.90	1.84	-1.49	-1.52	-1.5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2.12	2.10	2.05	-1.08	-1.11	-1.16
	화학섬유 제조업	2.30	2.28	2.22	1.96	1.93	1.87
	비료 및 농약 제조업	-4.80	-4.82	-4.87	-6.66	-6.68	-6.74
	의약품 제조업	5.06	5.03	4.98	2.90	2.87	2.8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49	3.47	3.42	2.34	2.31	2.25
	고무, 플라스틱제품	3.75	3.72	3.67	2.02	2.00	1.94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03	3.00	2.94	2.37	2.34	2.2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62	-0.64	-0.70	-2.95	-2.98	-3.04
	철강	1.16	1.14	1.09	0.06	0.03	-0.02
	비철금속	-1.03	-1.05	-1.09	-2.41	-2.43	-2.47
	금속제품 제조업	2.93	2.90	2.83	2.00	1.96	1.89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3.15	3.12	3.08	1.40	1.37	1.33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4.06	4.04	4.00	1.82	1.79	1.75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1.02	1.00	0.95	1.12	1.09	1.04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4.81	4.79	4.73	1.39	1.36	1.3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3.38	3.35	3.29	0.36	0.33	0.27
	전기장비 제조업	1.47	1.45	1.41	-0.53	-0.55	-0.59
	디스플레이	4.37	4.34	4.28	1.33	1.29	1.23
	반도체	5.60	5.58	5.52	1.61	1.58	1.52
	전자부품	3.39	3.36	3.31	0.94	0.91	0.85
	정밀기기 제조업	4.80	4.77	4.72	2.50	2.47	2.41
	자동차 제조업	3.96	3.93	3.88	1.78	1.75	1.69
	선박 제조업	2.97	2.95	2.90	1.61	1.58	1.5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4	2.41	2.34	1.65	1.62	1.55
	기타 제조업	3.11	3.08	3.02	1.57	1.53	1.47
S O C	전기업	1.97	1.94	1.89	0.22	0.19	0.13
	가스, 증기, 수도	2.18	2.15	2.09	0.06	0.03	-0.04
	건설업	1.96	1.92	1.85	0.77	0.72	0.64
서 비 스 업	도소매업	3.20	3.17	3.11	0.94	0.90	0.83
	음식점 및 숙박업	3.10	3.06	2.97	1.58	1.53	1.43
	운수 및 보관업	3.65	3.62	3.57	1.59	1.56	1.50
	금융 및 보험업	3.78	3.77	3.73	2.03	2.01	1.97
	주거서비스업	2.79	2.77	2.71	1.09	1.06	1.00
	부동산서비스업	2.89	2.85	2.79	0.91	0.87	0.80
	장비 및 용품 임대업	5.64	5.61	5.54	2.37	2.33	2.26

〈표 3-4〉 계속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서비스업 (계속)	출판업	1.01	0.99	0.93	-0.13	-0.17	-0.23
	영화	6.26	6.23	6.16	1.85	1.82	1.75
	방송업	4.19	4.16	4.09	1.71	1.68	1.61
	통신업	3.46	3.44	3.39	1.13	1.11	1.05
	정보서비스업	5.10	5.07	5.01	2.60	2.57	2.50
	전문서비스업	3.64	3.61	3.53	1.69	1.65	1.58
	연구개발업	5.87	5.84	5.79	2.92	2.89	2.84
	사업지원 서비스업	3.28	3.24	3.17	1.49	1.45	1.37
	공공행정 및 국방	1.98	1.94	1.86	1.12	1.08	0.99
	교육서비스업	2.78	2.74	2.66	1.39	1.34	1.25
	의료 및 보건업	4.97	4.93	4.86	2.29	2.25	2.18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	5.97	5.91	2.95	2.91	2.84
	문화서비스업	4.76	4.73	4.65	3.09	3.04	2.96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3.69	3.66	3.59	2.30	2.27	2.19
	위생서비스	3.05	3.02	2.95	1.86	1.82	1.74
	개인 서비스업	2.62	2.59	2.52	1.21	1.18	1.11
	사회단체	3.23	3.20	3.14	0.88	0.85	0.78
전산업		3.23	3.20	3.14	1.51	1.48	1.41

### 제3절 산업 교역구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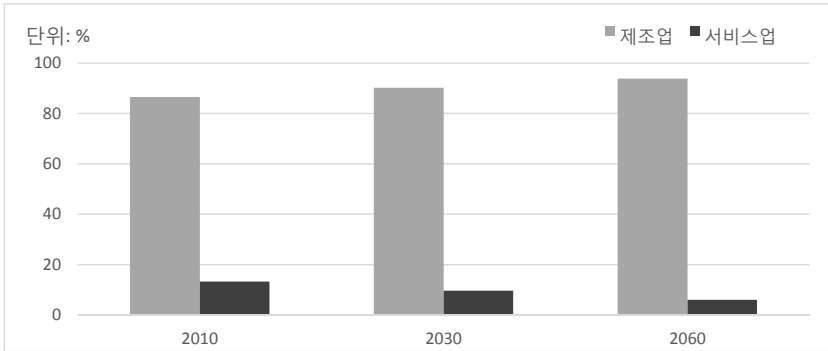
향후 우리 산업의 수출구조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확대되는 반면 농림어업, SOC 관련 산업, 서비스업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의 제조업 의존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림어업부문에서 자유무역주의의 확산과 농산물 수출국의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 농림어업부문의 수출 비중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에 비해 내수의존도가 높은 서비스 산업과



SOC 관련 산업의 수출은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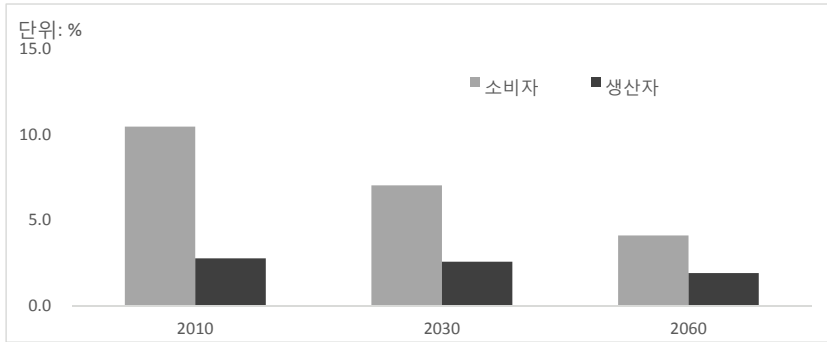
[그림 3-5] 수출 경상비중 전망



서비스업의 수출 비중은 2010년 13.28%에서 고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30년 9.64%, 2060년 6.01%까지 축소가 예상된다. SOC 관련 산업은 동기간 0.07%에서 0.04%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비스업 세부업종별로는 소비자 서비스의 비중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서비스는 2010년 10.46%로 전체 서비스업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60년 수출 비중이 4.09%까지 급감하면서 생산자 서비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등의 비중 축소가 소비자 서비스의 수출 비중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자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축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2010년 22.76%에서 고위시나리오 기준으로 2060년 1.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6] 서비스업 업종별 수출 경상비중 전망



제조업 수출은 여전히 우리 산업의 수출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신흥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수출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에 비해 기술, 품질 경쟁력은 우위에 있지만 독일, 일본 등의 제조업 강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열위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흥국들의 가파른 추격은 향후 우리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만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은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2010년 86.5%에서 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90.22%에서 2060년 93.8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5> 산업별 수출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0.12	0.08	0.08	0.08	0.06	0.06	0.06
광업	0.02	0.01	0.01	0.01	0.00	0.00	0.00
제조업	86.50	90.22	90.18	90.11	93.88	93.81	9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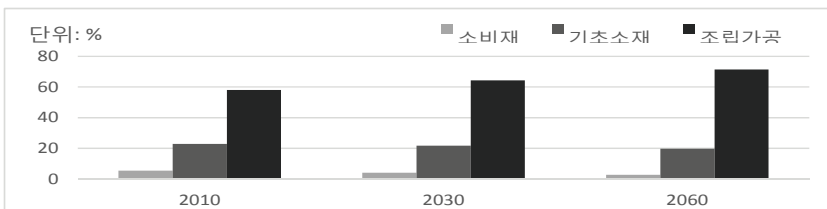
〈표 3-5〉 계속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소비재	5.56	4.11	4.12	4.14	2.77	2.79	2.83
기초소재	22.87	21.74	21.74	21.73	19.74	19.76	19.78
조립가공	58.07	64.37	64.33	64.25	71.37	71.27	71.06
SOC	0.07	0.05	0.05	0.05	0.04	0.04	0.04
서비스업	13.28	9.64	9.68	9.75	6.01	6.08	6.22
소비자	10.46	7.04	7.07	7.12	4.09	4.14	4.24
생산자	2.76	2.56	2.57	2.59	1.90	1.92	1.97
사회	0.06	0.03	0.03	0.04	0.02	0.02	0.02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지만 제조업 내부의 수출구조는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립가공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와 기초소재의 수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립가공업의 수출 비중은 2010년 28.07%에서 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64.37%, 2060년 71.37%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동기간에 소비재는 5.56%에서 2.77%로, 기초소재는 22.87%에서 19.7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조업 내 업종별 수출 불균형은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개별 산업의 성장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비교적 고용효과가 높은 소비재 산업의 성장 악화는 고용 창출력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7] 제조업 업종별 수출 경향비중 전망



〈표 3-6〉 세부 업종별 수출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 어업	농림어업	0.12	0.08	0.08	0.08	0.06	0.06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 및 비금속 광업	0.02	0.01	0.01	0.01	0.00	0.00	0.00
제조업	식품 제조업	0.79	0.52	0.52	0.52	0.38	0.38	0.38
	음료품 제조업	0.11	0.11	0.11	0.11	0.12	0.12	0.12
	담배 제조업	0.14	0.12	0.12	0.12	0.08	0.08	0.08
	섬유 및 의복 제조업	3.31	2.51	2.51	2.52	1.69	1.70	1.73
	가죽제품 제조업	0.34	0.24	0.24	0.25	0.19	0.19	0.20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01	0.00	0.00	0.00	0.00	0.00	0.00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54	0.36	0.36	0.36	0.16	0.16	0.16
	인쇄 및 복제업	0.02	0.01	0.01	0.01	0.00	0.00	0.00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6.32	6.69	6.70	6.71	5.15	5.17	5.2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06	3.26	3.25	3.23	3.34	3.32	3.27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3.17	2.13	2.12	2.12	1.34	1.34	1.33
	화학섬유 제조업	0.44	0.35	0.35	0.35	0.32	0.32	0.32
	비료 및 농약 제조업	0.10	0.05	0.05	0.05	0.01	0.02	0.02
	의약품 제조업	0.24	0.16	0.15	0.15	0.11	0.11	0.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97	0.82	0.82	0.82	0.63	0.63	0.62
	고무, 플라스틱제품	1.75	1.68	1.68	1.67	1.42	1.41	1.4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12	0.07	0.07	0.07	0.08	0.08	0.0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17	0.10	0.10	0.10	0.04	0.04	0.04
	철강	2.88	4.29	4.29	4.30	5.88	5.90	5.95
	비철금속	2.11	1.38	1.38	1.37	0.94	0.93	0.92
	금속제품 제조업	1.54	0.77	0.78	0.78	0.48	0.49	0.50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2.66	3.07	3.06	3.06	4.32	4.31	4.29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3.13	3.91	3.90	3.88	7.14	7.10	7.0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0.89	0.48	0.48	0.49	0.28	0.28	0.29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6.66	10.01	10.02	10.04	13.21	13.25	13.3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0.94	0.32	0.32	0.33	0.18	0.18	0.19
	전기장비 제조업	2.84	1.51	1.52	1.53	0.45	0.46	0.47
	디스플레이	10.37	6.61	6.61	6.62	2.97	2.98	2.99
	반도체	7.96	9.71	9.71	9.72	10.06	10.08	10.12
	전자부품	1.26	1.70	1.70	1.70	1.73	1.73	1.75
	정밀기기 제조업	1.06	1.38	1.38	1.37	2.29	2.28	2.26
	자동차 제조업	9.59	12.13	12.09	12.02	18.02	17.89	17.63
	선박 제조업	10.37	13.09	13.08	13.07	10.17	10.17	10.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4	0.43	0.43	0.43	0.54	0.54	0.54	
기타 제조업	0.31	0.23	0.24	0.24	0.16	0.16	0.16	

〈표 3-6〉 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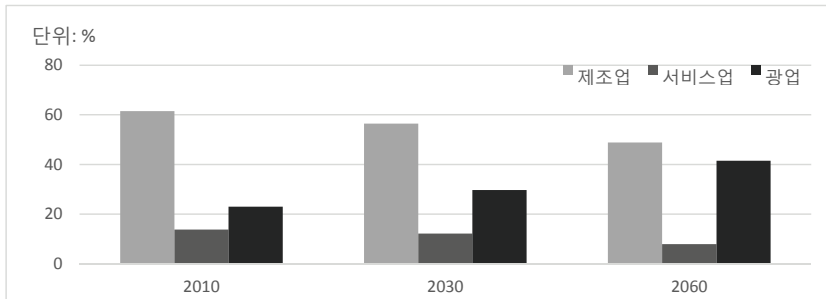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S 전기업	0.01	0.01	0.01	0.01	0.00	0.00	0.00	
O 가스, 증기, 수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 건설업	0.06	0.04	0.04	0.04	0.03	0.03	0.03	
서비스업	도소매업	1.97	1.13	1.14	1.15	0.53	0.54	0.55
	음식점 및 숙박업	0.95	0.65	0.65	0.66	0.38	0.39	0.40
	운수 및 보관업	7.06	4.92	4.94	4.97	2.96	2.99	3.06
	금융 및 보험업	0.44	0.33	0.33	0.33	0.22	0.22	0.23
	주거서비스업	0.06	0.04	0.04	0.04	0.03	0.03	0.03
	부동산서비스업	0.02	0.01	0.01	0.01	0.01	0.01	0.01
	장비 및 용품 임대업	0.15	0.09	0.09	0.09	0.05	0.05	0.05
	출판업	0.07	0.03	0.03	0.03	0.01	0.01	0.01
	영화	0.03	0.02	0.02	0.02	0.01	0.01	0.01
	방송업	0.04	0.04	0.04	0.04	0.03	0.03	0.03
	통신업	0.12	0.09	0.09	0.09	0.07	0.07	0.07
	정보서비스업	0.17	0.17	0.17	0.17	0.13	0.13	0.14
	전문서비스업	0.71	0.68	0.68	0.69	0.50	0.51	0.52
	연구개발업	0.45	0.61	0.61	0.62	0.56	0.56	0.58
	사업지원 서비스업	0.81	0.68	0.68	0.69	0.43	0.43	0.44
	공공행정 및 국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서비스업	0.03	0.02	0.02	0.02	0.01	0.01	0.01
	의료 및 보건업	0.01	0.01	0.01	0.01	0.00	0.00	0.00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문화서비스업	0.04	0.04	0.04	0.04	0.04	0.04	0.04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0.06	0.04	0.04	0.04	0.02	0.02	0.02
	위생서비스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개인 서비스업	0.06	0.04	0.04	0.04	0.02	0.02	0.03
	사회단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우리 산업의 수입구조는 광업의 비중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수입 비중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업의 수입은 2010년 22.97%에서 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29.72%, 2060년 41.52%로 증가할 전망이다. 광업 수입 비중 증가는 산업의 생산 규모가 증가추이를 유지함에 따라 석탄, 원유, 천연가스, 금속 등 산업부문의 생산원료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어업의 수입 비중은 2010년 1.79%에서 다소 축소되면서 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1.61%에서 2060년 1.66%로 감소 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8] 산업별 수입 비중 전망



서비스업의 수입 비중은 2010년 13.75%에서 고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30년 12.16%, 2060년 7.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출 비중의 감소가 수입 비중의 감소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되어 서비스업 부분의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수출입 비중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 및 보험업, 장비 및 용품 임대업, 정보서비스, 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제조업의 수입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부업종에서 기초소재의 수입 비중은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소재의 경우 석탄, 석유 제품, 합성수지, 화학, 의약품, 철강 등 타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전체의 생산이 증가추이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입 비중은 큰 폭의 감소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7〉 산업별 수입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1.79	1.61	1.61	1.62	1.66	1.68	1.72
광업	22.97	29.72	29.45	28.89	41.52	40.62	38.88
제조업	61.46	56.49	56.71	57.20	48.91	49.69	51.20
소비재	7.81	6.72	6.75	6.83	5.25	5.35	5.54
기초소재	27.50	26.67	26.79	27.06	23.65	24.09	24.94
조립가공	26.15	23.10	23.16	23.31	20.01	20.26	20.72
SOC	0.03	0.03	0.03	0.03	0.02	0.02	0.02
서비스업	13.75	12.16	12.19	12.26	7.90	8.00	8.17
소비자	6.61	5.08	5.09	5.12	2.98	3.01	3.07
생산자	6.38	6.59	6.61	6.66	4.67	4.73	4.85
사회	0.76	0.49	0.49	0.49	0.25	0.25	0.25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8〉 세부 업종별 수입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 어광 업	농림어업	1.79	1.61	1.61	1.62	1.66	1.68	1.72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9.98	25.16	24.88	24.29	36.17	35.20	33.35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99	4.55	4.57	4.60	5.34	5.41	5.53
제 조 업	식료품 제조업	2.61	2.06	2.07	2.10	1.53	1.56	1.62
	음료품 제조업	0.19	0.22	0.22	0.22	0.21	0.22	0.22
	담배 제조업	0.05	0.03	0.03	0.03	0.02	0.02	0.02
	섬유 및 의복 제조업	2.21	2.15	2.17	2.19	1.89	1.93	2.00
	가죽제품 제조업	0.81	0.70	0.71	0.72	0.56	0.57	0.59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32	0.20	0.20	0.20	0.12	0.12	0.13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81	0.46	0.46	0.47	0.16	0.17	0.17
	인쇄 및 복제업	0.06	0.03	0.04	0.04	0.01	0.01	0.0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6.28	6.61	6.63	6.67	4.59	4.65	4.76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45	2.84	2.85	2.87	2.10	2.13	2.19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0.79	0.34	0.34	0.34	0.11	0.11	0.11
	화학섬유 제조업	0.11	0.10	0.10	0.10	0.10	0.10	0.10
	비료 및 농약 제조업	0.22	0.16	0.16	0.16	0.05	0.05	0.05
	의약품 제조업	0.88	0.61	0.61	0.62	0.42	0.42	0.4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2	2.02	2.03	2.04	1.52	1.54	1.57
고무, 플라스틱제품	1.56	1.68	1.69	1.71	1.40	1.43	1.4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07	0.59	0.59	0.60	0.64	0.65	0.66	

〈표 3-8〉 계속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제조업 (계속)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54	0.33	0.33	0.33	0.13	0.13	0.13
	철강	5.54	8.51	8.57	8.69	10.76	11.01	11.50
	비철금속	3.52	1.90	1.91	1.93	1.00	1.02	1.05
	금속제품 제조업	1.40	0.98	0.99	0.99	0.85	0.86	0.88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2.75	2.53	2.54	2.56	2.71	2.75	2.83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3.92	3.21	3.21	3.23	3.47	3.51	3.58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0.15	0.10	0.10	0.10	0.06	0.06	0.07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1.96	1.86	1.87	1.88	1.58	1.61	1.6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1.28	0.54	0.54	0.55	0.33	0.33	0.34
	전기장비 제조업	2.41	1.22	1.22	1.23	0.31	0.32	0.32
	디스플레이	0.64	0.44	0.44	0.45	0.17	0.17	0.18
	반도체	4.54	4.04	4.05	4.06	2.42	2.44	2.48
	전자부품	1.54	0.84	0.84	0.85	0.28	0.28	0.29
	정밀기기 제조업	2.65	2.95	2.96	2.98	2.58	2.62	2.67
	자동차 제조업	1.76	2.00	2.01	2.03	2.49	2.53	2.62
선박 제조업	1.49	1.64	1.65	1.67	1.02	1.05	1.0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7	1.72	1.72	1.73	2.56	2.58	2.62	
기타 제조업	0.75	0.85	0.86	0.87	0.75	0.76	0.79	
S O C	전기업	0.02	0.02	0.02	0.02	0.01	0.01	0.01
	가스, 증기, 수도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서 비 스 업	도소매업	0.45	0.31	0.32	0.32	0.16	0.16	0.16
	음식점 및 숙박업	1.44	1.16	1.16	1.16	0.69	0.70	0.71
	운수 및 보관업	3.82	3.01	3.02	3.03	1.79	1.81	1.85
	금융 및 보험업	0.57	0.42	0.43	0.43	0.26	0.27	0.28
	주거서비스업	0.15	0.10	0.10	0.10	0.05	0.05	0.06
	부동산서비스업	0.13	0.10	0.10	0.10	0.05	0.05	0.05
	장비 및 용품 임대업	0.28	0.29	0.29	0.29	0.22	0.22	0.22
	출판업	0.18	0.08	0.08	0.08	0.02	0.02	0.03
	영화	0.10	0.08	0.08	0.08	0.05	0.05	0.05
	방송업	0.05	0.05	0.05	0.05	0.03	0.03	0.03
	통신업	0.23	0.11	0.11	0.11	0.04	0.04	0.04
	정보서비스업	0.47	0.40	0.40	0.40	0.26	0.26	0.26
	전문서비스업	1.90	1.64	1.65	1.65	0.99	1.00	1.02
	연구개발업	1.59	2.32	2.33	2.35	1.99	2.03	2.09
	사업지원 서비스업	1.44	1.42	1.43	1.43	0.91	0.92	0.94
	공공행정 및 국방	0.12	0.08	0.08	0.08	0.04	0.04	0.04
	교육서비스업	0.58	0.35	0.35	0.35	0.17	0.17	0.17
의료 및 보건업	0.03	0.03	0.03	0.03	0.02	0.02	0.02	



〈표 3-8〉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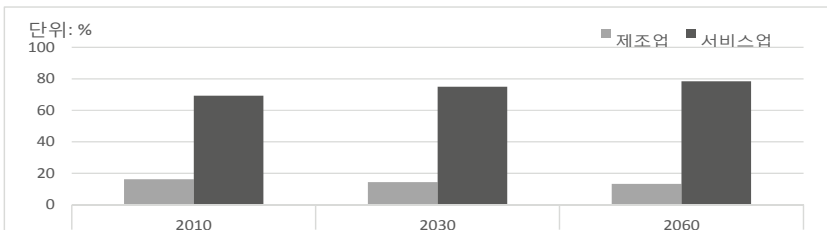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사회복지 서비스업	0.01	0.01	0.01	0.01	0.01	0.01	0.01
문화서비스업	0.09	0.11	0.11	0.11	0.11	0.11	0.11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0.07	0.05	0.05	0.05	0.04	0.04	0.04
위생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개인 서비스업	0.04	0.02	0.02	0.02	0.01	0.01	0.01
사회단체	0.02	0.02	0.02	0.02	0.01	0.01	0.01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제4절 산업 고용구조 전망

향후 우리경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부분의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효율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고용창출력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악화는 경제전체의 고용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산업 평균 감소율을 하회하며 고용창출력은 전반적인 악화가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한 노동의 공급여건도 악화되면서 전산업 부문에서 고용상황은 악화될 전망이다.

[그림 3-9] 산업별 취업자 비중 전망





〈표 3-10〉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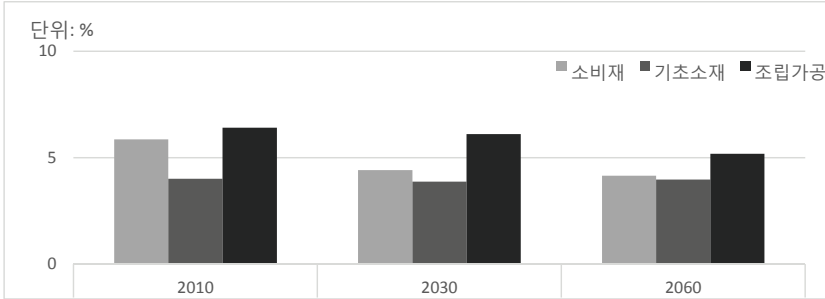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2.90	-2.90	-2.91	-3.29	-3.29	-3.30
광업	-5.70	-5.71	-5.73	-3.10	-3.12	-3.16
제조업	-0.06	-0.07	-0.09	-0.74	-0.75	-0.77
소비재	-0.87	-0.87	-0.86	-0.69	-0.69	-0.68
기초소재	0.38	0.37	0.34	-0.39	-0.40	-0.43
조립가공	0.32	0.30	0.27	-1.02	-1.03	-1.07
SOC	0.46	0.45	0.43	-0.57	-0.59	-0.61
서비스업	0.96	0.94	0.90	-0.31	-0.35	-0.40
소비자	0.53	0.53	0.51	-0.57	-0.58	-0.60
생산자	1.62	1.57	1.47	-0.19	-0.26	-0.40
사회	1.08	1.07	1.05	-0.05	-0.06	-0.09
전산업	0.56	0.55	0.51	-0.46	-0.49	-0.54

제조업 세부업종에서는 소비재 산업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고용비중이 높았던 소비재 산업의 고용 비중 감소는 제조업 부문 고용창출력 악화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런 노동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산업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기술과 대규모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조립가공 산업 부문도 부가가치 증가에 비해 고용창출은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은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에 비해 우위에 있지만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에 비해 열위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 우위에서 기술, 품질경쟁력 우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개별 산업이 처한 상황과 특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별로 차별화된 교육, 훈련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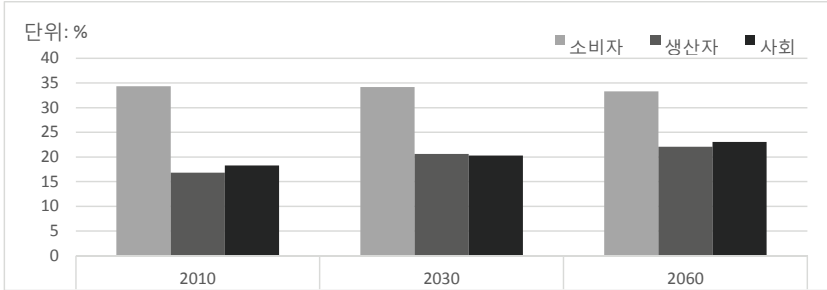
[그림 3-10]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비중 전망



서비스업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요확대와 경제의 서비스화 가 진전되면서 취업자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30년 이후 산업의 성장 추이가 둔화되면서 생산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창출력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의 고용 비중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 서비스의 고용비중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 되면서 고용의 탈공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생산성 수준이 높은 제조업에서 낮은 서비스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지속될 전망되며, 이러한 전망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확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향후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노동력의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특성상 주 생산요소인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

[그림 3-11]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비중 전망



<표 3-11> 세부 업종별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7.07	3.50	3.52	3.54	1.48	1.49	1.52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02	0.00	0.00	0.00	0.00	0.00	0.00
업	0.07	0.02	0.02	0.02	0.01	0.01	0.01
제조업	1.38	1.07	1.08	1.09	1.15	1.17	1.22
식품 제조업	0.15	0.12	0.12	0.12	0.17	0.17	0.17
음료품 제조업	0.02	0.01	0.01	0.01	0.01	0.01	0.01
담배 제조업	1.48	1.27	1.28	1.29	1.17	1.19	1.22
섬유 및 의복 제조업	0.22	0.15	0.15	0.15	0.20	0.20	0.20
가죽제품 제조업	0.13	0.10	0.10	0.10	0.06	0.06	0.06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29	0.13	0.13	0.13	0.05	0.05	0.05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37	0.14	0.14	0.14	0.03	0.03	0.03
인쇄 및 복제업	0.08	0.04	0.04	0.04	0.03	0.03	0.04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18	0.10	0.10	0.10	0.07	0.07	0.07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0.09	0.08	0.08	0.08	0.05	0.05	0.05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0.03	0.02	0.02	0.02	0.02	0.02	0.02
화학섬유 제조업	0.05	0.01	0.01	0.01	0.00	0.00	0.00
비료 및 농약 제조업	0.18	0.21	0.21	0.21	0.26	0.26	0.26
의약품 제조업	0.28	0.32	0.32	0.32	0.45	0.45	0.45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87	0.86	0.86	0.86	0.89	0.89	0.89
고무, 플라스틱제품	0.12	0.10	0.10	0.10	0.10	0.10	0.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30	0.16	0.16	0.16	0.04	0.04	0.04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31	0.32	0.32	0.32	0.24	0.24	0.24
철강	0.32	0.18	0.18	0.18	0.06	0.06	0.06
비철금속	1.20	1.46	1.46	1.46	1.74	1.75	1.77
금속제품 제조업	0.78	0.85	0.85	0.85	0.77	0.77	0.77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76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표 3-12〉 세부 업종별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30			2060			
		S1	S2	S3	S1	S2	S3	
제조업 (계속)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0.83	0.85	0.85	0.85	0.71	0.71	0.70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0.11	0.06	0.06	0.06	0.04	0.04	0.04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0.48	0.29	0.30	0.30	0.24	0.24	0.2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0.08	0.04	0.04	0.04	0.03	0.03	0.03
	전기장비 제조업	0.79	0.85	0.86	0.86	0.73	0.74	0.75
	디스플레이	0.25	0.34	0.34	0.34	0.42	0.42	0.43
	반도체	0.40	0.35	0.35	0.35	0.31	0.31	0.32
	전자부품	0.35	0.30	0.30	0.30	0.27	0.27	0.27
	정밀기기 제조업	0.37	0.38	0.38	0.38	0.24	0.24	0.24
	자동차 제조업	1.41	1.25	1.25	1.24	0.92	0.91	0.89
	선박 제조업	0.47	0.44	0.45	0.45	0.40	0.40	0.4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7	0.09	0.09	0.09	0.10	0.10	0.10
	기타 제조업	1.82	1.40	1.41	1.42	1.26	1.27	1.30
S O C	전기업	0.23	0.17	0.17	0.17	0.12	0.13	0.13
	가스, 증기, 수도	0.13	0.14	0.14	0.14	0.15	0.15	0.15
	건설업	6.79	6.70	6.71	6.73	6.50	6.54	6.61
서비스업	도소매업	14.53	14.39	14.44	14.53	14.10	14.25	14.53
	음식점 및 숙박업	6.90	7.59	7.60	7.63	9.42	9.49	9.61
	운수 및 보관업	5.80	5.94	5.93	5.93	5.26	5.27	5.27
	금융 및 보험업	3.41	2.31	2.31	2.32	1.37	1.38	1.40
	부동산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장비 및 용품 임대업	2.14	2.36	2.38	2.41	1.87	1.90	1.98
	출판업	0.30	0.27	0.27	0.27	0.20	0.20	0.20
	영화	0.31	0.32	0.32	0.32	0.24	0.24	0.23
	방송업	0.19	0.20	0.20	0.20	0.15	0.15	0.15
	통신업	0.17	0.18	0.18	0.18	0.12	0.12	0.12
	정보서비스업	0.76	0.38	0.38	0.38	0.21	0.21	0.21
	전문서비스업	1.47	1.58	1.58	1.57	1.06	1.05	1.04
	연구개발업	3.52	4.69	4.70	4.72	4.90	4.93	4.98
	사업지원 서비스업	1.80	3.15	3.14	3.13	4.69	4.68	4.66
	공공행정 및 국방	4.18	6.36	6.22	5.92	8.43	7.91	6.96
	교육서비스업	4.22	3.27	3.28	3.30	2.12	2.15	2.19
	의료 및 보건업	7.15	6.70	6.70	6.71	5.30	5.32	5.35
	사회복지 서비스업	2.98	3.34	3.34	3.35	2.64	2.65	2.67
	문화서비스업	2.33	5.73	5.74	5.74	12.11	12.15	12.21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0.56	0.57	0.57	0.57	0.42	0.42	0.43
	위생서비스	1.00	1.07	1.06	1.04	0.87	0.85	0.80
개인 서비스업	0.55	0.52	0.52	0.53	0.38	0.38	0.38	
사회단체	4.12	3.49	3.50	3.53	2.26	2.29	2.34	
전산업	1.04	0.68	0.68	0.69	0.41	0.41	0.42	

〈표 3-13〉 세부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 전망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농림 어업	농림어업	-2.90	-3.05	-2.91	-3.29	-3.41	-3.30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6.30	-6.64	-6.36	-0.27	-0.31	-0.35
	금속 및 비금속 광업	-5.54	-5.83	-5.57	-4.35	-4.51	-4.39
제 조 업	식품 제조업	-0.70	-0.72	-0.66	-0.22	-0.22	-0.18
	음료품 제조업	-0.59	-0.64	-0.64	0.78	0.79	0.72
	담배 제조업	-2.26	-2.37	-2.25	-1.67	-1.73	-1.67
	섬유 및 의복 제조업	-0.18	-0.19	-0.18	-0.74	-0.76	-0.73
	가죽제품 제조업	-1.22	-1.32	-1.31	0.52	0.50	0.41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1.05	-1.10	-1.04	-1.87	-1.93	-1.86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3.25	-3.42	-3.27	-3.84	-3.98	-3.86
	인쇄 및 복제업	-4.35	-4.35	-4.36	-5.40	-5.41	-5.42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2.16	-2.16	-2.16	-1.34	-1.35	-1.35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20	-2.20	-2.22	-1.80	-1.81	-1.82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0.36	-0.38	-0.41	-1.67	-1.69	-1.73
	화학섬유 제조업	-0.48	-0.49	-0.51	-0.77	-0.79	-0.81
	비료 및 농약 제조업	-5.54	-5.54	-5.53	-7.70	-7.69	-7.69
	의약품 제조업	1.33	1.30	1.24	0.28	0.24	0.18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23	1.22	1.19	0.66	0.64	0.61
	고무, 플라스틱제품	0.50	0.48	0.45	-0.36	-0.38	-0.4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18	-0.19	-0.22	-0.35	-0.36	-0.3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4	-2.75	-2.76	-4.60	-4.60	-4.62
	철강	0.77	0.76	0.74	-1.48	-1.49	-1.52
	비철금속	-2.34	-2.34	-2.33	-4.29	-4.29	-4.28
	금속제품 제조업	1.53	1.53	1.51	0.13	0.12	0.10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0.99	0.98	0.95	-0.82	-0.84	-0.87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0.68	0.66	0.62	-1.06	-1.09	-1.14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44	-2.47	-2.53	-1.76	-1.79	-1.86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1.81	-1.82	-1.82	-1.16	-1.16	-1.17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3.28	-3.30	-3.34	-1.31	-1.33	-1.38
	전기장비 제조업	0.99	0.98	0.97	-0.98	-0.99	-1.01
	디스플레이	1.97	1.96	1.95	0.26	0.25	0.24
	반도체	-0.16	-0.16	-0.16	-0.87	-0.88	-0.88
	전자부품	-0.21	-0.22	-0.23	-0.90	-0.90	-0.92
	정밀기기 제조업	0.62	0.60	0.54	-1.93	-1.96	-2.02
	자동차 제조업	-0.03	-0.06	-0.13	-1.50	-1.54	-1.62
	선박 제조업	0.27	0.26	0.26	-0.81	-0.82	-0.8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0	1.50	1.48	-0.06	-0.07	-0.08	
기타 제조업	-0.74	-0.73	-0.73	-0.83	-0.82	-0.82	

78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표 3-13〉 계속

(단위 : %)

		2011-30			2031-60		
		S1	S2	S3	S1	S2	S3
S O C	전기업	-0.93	-0.93	-0.93	-1.50	-1.51	-1.51
	가스, 증기, 수도	0.87	0.87	0.87	-0.36	-0.36	-0.36
	건설업	0.49	0.48	0.46	-0.56	-0.57	-0.59
서비스업	도소매업	0.52	0.52	0.52	-0.53	-0.53	-0.54
	음식점 및 숙박업	1.04	1.04	1.02	0.26	0.25	0.23
	운수 및 보관업	0.68	0.66	0.62	-0.86	-0.89	-0.93
	금융 및 보험업	-1.38	-1.38	-1.39	-2.19	-2.20	-2.21
	부동산서비스업	-	-	-	-	-	-
	장비 및 용품 임대업	1.05	1.06	1.10	-1.24	-1.22	-1.18
	출판업	0.11	0.10	0.08	-1.54	-1.55	-1.57
	영화	0.70	0.67	0.62	-1.48	-1.51	-1.56
	방송업	0.78	0.76	0.72	-1.27	-1.29	-1.34
	통신업	1.03	0.99	0.92	-1.89	-1.93	-2.01
	정보서비스업	-2.83	-2.84	-2.85	-2.44	-2.45	-2.46
	전문서비스업	0.95	0.92	0.85	-1.77	-1.81	-1.89
	연구개발업	2.02	2.01	1.99	-0.32	-0.33	-0.35
	사업지원 서비스업	3.42	3.40	3.35	0.87	0.84	0.79
	공공행정 및 국방	2.69	2.56	2.28	0.48	0.31	0.00
	교육서비스업	-0.71	-0.71	-0.71	-1.89	-1.89	-1.89
	의료 및 보건업	0.24	0.22	0.19	-1.24	-1.26	-1.29
	사회복지 서비스업	1.14	1.13	1.10	-1.24	-1.26	-1.28
	문화서비스업	5.20	5.18	5.15	2.05	2.03	2.0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0.61	0.59	0.56	-1.42	-1.44	-1.48
	위생서비스	0.93	0.86	0.72	-1.15	-1.23	-1.39
개인 서비스업	0.33	0.32	0.30	-1.56	-1.57	-1.59	
사회단체	-0.26	-0.26	-0.26	-1.89	-1.89	-1.89	
전산업	-1.56	-1.56	-1.57	-2.12	-2.13	-2.13	





## 제4장 결론

제1절 전망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전망결과의 요약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노동수급 등 거시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의 구조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중점을 두면서 국내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의 전망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별 생산, 교역, 고용 구조의 과거와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 전망을 수행하였다. 전망을 위해 산업경제 계량모형의 결과와 3개의 인구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2030년 이후에 두드러지므로 전망 대상 기간을 2060년 까지 확장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향후 한국 산업의 생산구조는 생산구조의 탈공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과 SOC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제조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추이를 지속할 전망이지만 기술개발에 따른 상대가격 하락은 전산업 대비 경상부가가치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산업 대비 비중

은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우리 산업의 수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며 서비스업, SOC 관련 산업의 비중은 축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의 제조업 의존도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가파른 추격이 계속되면서 기술, 품질 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제조업과 타산업간 수출 불균형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부의 수출 불균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 우리경제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부문의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효율화 진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고용창출력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해 노동 공급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산업 부문에서 고용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에서 품질경쟁력 향상과 서비스업부문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최우선과제이며, 개별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방안을 설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향후 한국 경제는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기본방향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략과 맥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둔화가 예상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수요와 소비계층의 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서 산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요가 발생하거나, 특이한 수요(unusual demand)가 일상적인 수요(usual demand)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요가 실제 소비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산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 지원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같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재화된 수요를 표면화 시키는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기존 소규모 산업의 규모 확대는 자연스럽게 고용창출로 연계될 것이므로 성장가능성이 큰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산업계의 노력이 요구 된다.

## 1. 제조업

제조업 부문은 시장개방 폭이 크고 국제 시장의 경쟁에 거의 노출되어 있어 국제 경제상황에 따른 파급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수출주력 산업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 심화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측면이 강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이 자동화, 생산비용 절감 등에 치중되어 기술, 품질 경쟁력은 다소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R&D가 요구된다.

내수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산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규모 축소로 인해 수요 위축이 예상되며, 이는 성장의 한계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소비재 산업은 전통적으로 고용을 리드하던 산업이었으나 부품, 조립·가공업 등 고위 기술 군 또는 서비스업 부문으로 고용이 이동하면서 숙련 노동력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숙련 노동력의 이탈과 함께 신규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인적자본의 적절한 배치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향후 소비재산업 부문에서는 수요 위축보다 숙련 노동력의 이탈이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서 소비재화의 질적 하락과 함께 초과수요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재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숙련 노동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진입 인력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원 방안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기술인력 육성방안으로 산업별 차별화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R&D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제품의 질적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보다는 생산구조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형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므로, R&D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제품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소재와 조립·가공 산업은 비교적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들의 추격이 거세며,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에 비해 열위에 위치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산업의 위치는 가격경쟁력 우위에서 품질 및 기술 경쟁력 우위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신제품 개발, 설계능력, 특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면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R&D의 상당부분이 이 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며, 최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구의 성과와 수준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기초연구가 디딤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에 걸친 투자와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는 개발된 기술이 경제성 있는 상품으로 전환되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연계될 때 가시화되므로 개발된 기술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후속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기술의 제품화 이후 과정에 대한 지원 또한 중요하다. 제품 생산 이후 유통 및 판매를 위해 관련 서비스업계와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업 부문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투자가 절실하며,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특허 취득을 위해 관련 서비스업과 연계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체계의 현실화를 통해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R&D 투자가 확대되어 산업별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산업간 기술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시대에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의 R&D를 유도하되 성장 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을 동시에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의 범위를 포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선택·집중과 확장·연계의 조화를 통해 핵심 산업 군을 선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산업간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조업 내 내수주력산업과 수출주력산업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내수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반면, 수출주력 산업인 조립가공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주력산업이 해외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내수주력산업은 국내경제 상황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큰 영향을 받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출을 통한 성장과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의 균형을 통해 산업 간 동반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내수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에 비해 작은 개방 폭으로 인해 비교적 경쟁 상황에 노출 정도가 작았지만,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향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이다. 특히, 고용의 탈공업화가 지속되면서 생산성 수준이 높은 제조업에서 낮은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게 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특성 상 주 생산요소인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므로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자 서비스는 지식기반 창조경제의 진전과 기업의 생산, 경영 구조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업관련 전문서비스의 아웃소싱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서비스업은 선진국에 비해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이 작다. 더욱이 생산자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열위는 서비스 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생산자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 자원이 필수이며, 생산자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업 부분에 비해 고용창출력은 다소 약하지만 고급 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을 통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고 국제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 역할을 하는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국제 경쟁력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므로 제조업과 연계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 삶의 질, 자원 보존, 디자인, 법률, 시험 인증 등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소비자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온라인화, 무인화 등으로 가속되면서 과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형태가 유형(有形)의 재화 소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무형(無形)의 서비스 가치에 대한 소비를 즐기는 소위 가치소비, 문화소비 등 소비 행위 자체를 즐기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늘어난 고령층의 새로운 수요와 맞물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의 확대를 소비자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의 출현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소비자 서비스의 지속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내수 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산업계는 잠재 수요를 소비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사회 서비스는 공공재화의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여타 서비스와 차별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고령층과 아동 관련 사회 서비스의 내재적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특성상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기조 하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 지출이 요구되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인구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여 민간의 시장참여를 유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은 내재화되어 있는 사회 서비스 수요를 표면화 시키고 수요를 소비로 구체화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은 사회 서비스 수요를 산업의 소비로 연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수요 대상을 세분화하여 사회 서비스 영역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 3. 고용정책

산업 부문별 공급 탄력성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 소비지출의 구성 변화는 상당 부분 산업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노동력의 이동이 요구되며 인적자원의 재교육과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교육을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과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체계가 서비스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별 인적양성 체계는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업종별 협회의 주도하에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인력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형태이므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노동유통망의 도입은 노동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숙련 노동력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별 인력풀 제도와 노동유통망에 교육훈련 기능을 더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OECD와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고용보호관련 규제(EPL) 완화는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PL의 완화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수반되었으며, 사회·복지 정책의 보완 없이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대상의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관련 사회·복지 정책을 고령층 대상의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속과 관련된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을 연계하여 정책 수행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후생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후생증가를 유도할 것이다.

안정된 고용은 숙련 노동력의 양성과 후속 세대로의 기술과 현장 경험 이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적정 기간의 고용 안정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 시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해야 하므로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용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에 맞게 정리된 인력통계의 구축과 관련 산업 분야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통계 구축과 시스템 간의 연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산업이 가격 경쟁력 우위에서 기술, 품질 경쟁력 우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은 주로 교육, 훈련, 현장경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해당 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인력

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가 녹아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계는 인력의 범위를 교육·훈련 이후가 아닌 시작단계까지를 포괄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박세경 외(2011), 「유망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정책 보고서 2011-102.
- 오영석 외(2011),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619.
- 이견직(2012),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응용경제 14권 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 이진면 외(2012),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638.
- \_\_\_\_\_ (2008),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산업화」, 산업연구원.
-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따른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2006), 「인구구조 고령화와 산업구조」, 연구보고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0),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정책 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 황상필(2009),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Working Paper 413호.
- Axel Börsch-Supan(2002), “*Labor Market Effects of Population Aging*”, MEA, Universität Mannheim.
- Browning Harley and Joachim Singelmann(1978),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Labor Fore: The Interaction of Industry and Occupation”, *Politics and Societ*, Vol 8, pp.481-509.
- Elfring Tom(1988), “*Service sector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ldershot, Gower.

John Beard et. al(2012), “Global Population Ageing: Peril or Promise?”, *PROGRAM ON THE GLOBAL DEMOGRAPHY OF AGING*, Working Paper Series.

Melanie Lührmann(2005), “*Population Aging and the Demand for Goods & Services*”, MEA, Universität Mannheim.

〈부표 1〉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경상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	2.47	1.96	1.96	1.55	1.55	1.55	1.26	1.26	1.26	1.26	1.26	1.26	1.05	1.05	1.05	0.91	0.91
어업	0.03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4	0.04	0.04
업	0.17	0.15	0.15	0.15	0.13	0.13	0.11	0.11	0.11	0.11	0.11	0.11	0.08	0.08	0.09	0.07	0.07	0.07
	0.98	0.71	0.71	0.49	0.49	0.49	0.34	0.34	0.34	0.35	0.25	0.25	0.25	0.25	0.19	0.19	0.19	0.19
	0.20	0.22	0.22	0.20	0.20	0.20	0.20	0.18	0.18	0.18	0.17	0.17	0.17	0.17	0.15	0.15	0.15	0.15
	0.12	0.10	0.10	0.08	0.08	0.08	0.06	0.06	0.06	0.06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3
	1.34	1.21	1.21	1.22	0.99	0.99	0.99	0.81	0.82	0.82	0.67	0.67	0.68	0.55	0.56	0.56	0.56	0.56
	0.14	0.15	0.15	0.13	0.13	0.13	0.11	0.11	0.11	0.11	0.10	0.10	0.10	0.09	0.09	0.09	0.09	0.09
	0.14	0.09	0.09	0.06	0.06	0.06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2	0.02	0.02	0.02	0.02
	0.47	0.36	0.36	0.23	0.23	0.23	0.14	0.14	0.14	0.14	0.09	0.09	0.09	0.05	0.05	0.05	0.05	0.05
	0.24	0.14	0.14	0.08	0.08	0.08	0.04	0.04	0.04	0.04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65	0.65	0.65	0.48	0.48	0.48	0.33	0.33	0.33	0.33	0.21	0.21	0.21	0.12	0.12	0.12	0.12	0.13
	0.91	0.79	0.79	0.60	0.60	0.60	0.42	0.42	0.42	0.42	0.27	0.27	0.27	0.17	0.17	0.17	0.17	0.17
	0.63	0.51	0.51	0.41	0.41	0.41	0.32	0.32	0.32	0.32	0.24	0.24	0.24	0.17	0.17	0.17	0.17	0.17
	0.09	0.07	0.07	0.07	0.07	0.07	0.06	0.07	0.07	0.07	0.06	0.06	0.06	0.05	0.05	0.05	0.05	0.05
	0.08	0.04	0.04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44	0.47	0.47	0.50	0.50	0.50	0.50	0.51	0.51	0.51	0.49	0.49	0.50	0.46	0.46	0.46	0.46	0.46
	0.59	0.60	0.60	0.54	0.55	0.55	0.55	0.49	0.49	0.49	0.44	0.44	0.44	0.39	0.39	0.39	0.39	0.39
	1.33	1.39	1.39	1.32	1.32	1.32	1.21	1.21	1.21	1.21	1.06	1.06	1.07	0.89	0.90	0.90	0.90	0.90
	0.49	0.25	0.25	0.22	0.22	0.22	0.18	0.18	0.18	0.18	0.16	0.16	0.16	0.14	0.14	0.14	0.14	0.14
	0.47	0.42	0.42	0.31	0.31	0.31	0.21	0.21	0.21	0.21	0.14	0.14	0.14	0.09	0.09	0.09	0.09	0.09
	2.19	1.85	1.85	1.72	1.72	1.72	1.50	1.50	1.50	1.51	1.24	1.24	1.25	0.96	0.96	0.96	0.96	0.97

제 조 업







〈부표 2〉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실질 증가율 전망

(단위 : %)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2050~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농림어업	0.81	0.80	0.77	-0.35	-0.40	-0.49	-0.87	-0.90	-0.97	-1.27	-1.31	-1.38	-1.56	-1.60	-1.67
	식단,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87	1.86	1.82	2.69	2.62	2.51	2.37	2.33	2.24	1.95	1.90	1.82	1.52	1.47	1.39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40	1.40	1.38	-0.54	-0.58	-0.65	-1.25	-1.27	-1.32	-1.95	-1.97	-2.02	-2.66	-2.69	-2.74
	식품업	1.26	1.26	1.22	2.14	2.09	2.00	1.30	1.26	1.20	0.69	0.65	0.59	0.38	0.35	0.28
	음료품 제조업	4.66	4.65	4.62	2.76	2.71	2.63	1.77	1.74	1.68	1.05	1.02	0.96	0.66	0.63	0.57
	담배 제조업	1.52	1.52	1.49	1.21	1.16	1.08	-0.25	-0.28	-0.34	-1.23	-1.26	-1.31	-1.79	-1.82	-1.88
	섬유 및 의복 제조업	3.49	3.48	3.47	3.00	2.96	2.89	2.16	2.14	2.09	1.54	1.52	1.47	1.22	1.20	1.15
	건축제품 제조업	5.45	5.44	5.41	2.95	2.89	2.81	1.99	1.95	1.89	1.34	1.30	1.24	1.01	0.98	0.92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29	0.29	0.26	0.42	0.37	0.29	-0.63	-0.66	-0.72	-1.34	-1.37	-1.42	-1.70	-1.73	-1.79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36	-0.37	-0.40	-2.11	-2.16	-2.23	-2.97	-3.00	-3.06	-3.53	-3.56	-3.62	-3.94	-3.97	-4.03
	인쇄 및 복제업	-3.33	-3.34	-3.37	-4.21	-4.26	-4.35	-4.67	-4.70	-4.77	-4.95	-4.98	-5.05	-5.14	-5.17	-5.24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1.09	1.08	1.06	-0.12	-0.16	-0.23	-1.21	-1.23	-1.28	-2.09	-2.11	-2.16	-2.75	-2.78	-2.8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85	2.84	2.81	1.00	0.96	0.88	-0.56	-0.59	-0.65	-1.58	-1.61	-1.67	-2.33	-2.36	-2.42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2.68	2.68	2.66	1.57	1.52	1.45	-0.12	-0.15	-0.20	-1.18	-1.20	-1.25	-1.94	-1.97	-2.02	
화학섬유 제조업	0.87	0.87	0.84	3.75	3.70	3.62	2.71	2.68	2.62	1.84	1.81	1.75	1.34	1.31	1.26	
비료 및 농약 제조업	-4.42	-4.42	-4.44	-5.18	-5.22	-5.30	-6.06	-6.08	-6.13	-6.70	-6.73	-6.78	-7.21	-7.24	-7.29	
의약품 제조업	5.23	5.23	5.20	4.88	4.83	4.76	3.74	3.71	3.65	2.77	2.74	2.69	2.18	2.15	2.1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28	3.28	3.25	3.71	3.66	3.58	2.95	2.92	2.86	2.24	2.21	2.15	1.84	1.81	1.75	
고무, 플라스틱제품	3.78	3.78	3.75	3.72	3.67	3.59	2.73	2.70	2.65	1.91	1.88	1.82	1.44	1.41	1.36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14	2.13	2.10	3.92	3.87	3.79	3.05	3.01	2.95	2.26	2.23	2.17	1.82	1.79	1.72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34	0.34	0.31	-1.57	-1.61	-1.69	-2.43	-2.46	-2.52	-3.00	-3.03	-3.09	-3.43	-3.46	-3.52	
철강	1.76	1.75	1.73	0.57	0.52	0.45	0.21	0.19	0.14	0.05	0.03	-0.02	-0.10	-0.13	-0.18	

제 조 업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2050~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비철금속	-0.83	-0.83	-0.84	-1.23	-1.27	-1.33	-1.93	-1.95	-1.99	-2.44	-2.46	-2.50	-2.85	-2.86	-2.91
금속제품 제조업	2.71	2.70	2.66	3.15	3.09	3.00	2.53	2.49	2.41	1.90	1.86	1.79	1.57	1.53	1.46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3.36	3.36	3.34	2.93	2.89	2.82	1.97	1.95	1.90	1.30	1.27	1.22	0.93	0.90	0.85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4.59	4.59	4.57	3.54	3.51	3.44	2.47	2.44	2.40	1.71	1.68	1.64	1.28	1.26	1.21
가용성 전기기기 제조업	-0.40	-0.40	-0.43	2.46	2.42	2.34	1.61	1.58	1.52	1.02	0.99	0.94	0.73	0.70	0.65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6.19	6.18	6.16	3.45	3.41	3.33	2.20	2.17	2.12	1.26	1.24	1.19	0.69	0.66	0.6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4.63	4.63	4.60	2.14	2.09	2.01	1.07	1.04	0.98	0.26	0.23	0.17	-0.24	-0.27	-0.33
전기장비 제조업	2.64	2.64	2.62	0.31	0.27	0.21	-0.21	-0.23	-0.28	-0.56	-0.58	-0.62	-0.81	-0.83	-0.88
디스플레이	5.19	5.19	5.15	3.56	3.50	3.41	2.20	2.17	2.10	1.21	1.17	1.11	0.58	0.55	0.48
반도체	7.40	7.40	7.36	3.84	3.78	3.70	2.49	2.45	2.39	1.49	1.46	1.40	0.87	0.84	0.78
전자부품	3.97	3.96	3.94	2.81	2.77	2.69	1.68	1.65	1.60	0.83	0.81	0.75	0.31	0.28	0.22
정밀기기 제조업	5.87	5.87	5.84	3.74	3.69	3.61	2.97	2.94	2.88	2.41	2.38	2.32	2.13	2.10	2.04
자동차 제조업	4.66	4.65	4.62	3.26	3.21	3.13	2.32	2.29	2.23	1.68	1.65	1.59	1.34	1.31	1.25
선박 제조업	3.36	3.35	3.33	2.59	2.55	2.47	1.97	1.94	1.89	1.53	1.50	1.45	1.34	1.31	1.2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3	2.23	2.19	2.64	2.58	2.49	2.02	1.98	1.91	1.57	1.53	1.46	1.37	1.34	1.27
기타 제조업	3.22	3.22	3.18	3.00	2.95	2.86	2.09	2.06	1.99	1.46	1.43	1.36	1.15	1.11	1.05
S 전기업	2.35	2.34	2.31	1.59	1.55	1.46	0.76	0.73	0.67	0.16	0.13	0.07	-0.27	-0.30	-0.36
O 가스, 증기, 수도	3.01	3.00	2.97	1.36	1.31	1.22	0.58	0.54	0.47	0.01	-0.03	-0.10	-0.40	-0.44	-0.50
C 건설업	1.88	1.88	1.83	2.03	1.97	1.87	1.28	1.23	1.15	0.72	0.67	0.59	0.31	0.27	0.19
도소매업	3.91	3.90	3.87	2.50	2.44	2.35	1.58	1.55	1.48	0.88	0.84	0.78	0.35	0.32	0.25
음식업 및 숙박업	3.18	3.17	3.12	3.02	2.94	2.82	2.17	2.12	2.03	1.52	1.47	1.38	1.04	0.99	0.90
운수 및 보관업	3.95	3.95	3.92	3.35	3.30	3.22	2.31	2.28	2.22	1.49	1.43	1.34	0.94	0.91	0.85
금융 및 보험업	4.08	4.07	4.07	3.49	3.46	3.40	2.63	2.62	2.58	1.97	1.95	1.92	1.48	1.46	1.43
주거서비스업	2.84	2.84	2.81	2.74	2.69	2.62	1.77	1.74	1.68	1.03	1.00	0.94	0.47	0.44	0.39
부동산서비스업	3.29	3.28	3.24	2.49	2.43	2.33	1.56	1.52	1.45	0.85	0.82	0.74	0.33	0.29	0.21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2050-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장비 및 용품 임대업	7.00	7.00	6.96	4.29	4.24	4.14	3.12	3.08	3.00	2.30	2.26	2.19	1.71	1.67	1.60
출판업	1.08	1.08	1.05	0.94	0.89	0.81	0.31	0.28	0.21	-0.18	-0.21	-0.27	-0.53	-0.56	-0.62
영화	8.27	8.27	8.23	4.29	4.23	4.14	2.78	2.74	2.67	1.76	1.72	1.65	1.02	0.99	0.92
방송업	4.75	4.74	4.71	3.62	3.57	3.48	2.49	2.46	2.39	1.64	1.61	1.54	1.00	0.97	0.90
통신업	4.12	4.12	4.09	2.81	2.76	2.69	1.81	1.78	1.72	1.07	1.04	0.99	0.53	0.50	0.44
정보서비스업	5.74	5.74	5.70	4.47	4.41	4.32	3.36	3.32	3.25	2.53	2.49	2.42	1.92	1.88	1.81
전문서비스업	3.99	3.98	3.94	3.30	3.23	3.13	2.31	2.27	2.19	1.63	1.59	1.51	1.15	1.11	1.03
연구개발업	7.01	7.00	6.97	4.74	4.70	4.62	3.63	3.60	3.54	2.85	2.82	2.76	2.29	2.26	2.20
사업지원 서비스업	3.54	3.53	3.49	3.02	2.96	2.86	2.13	2.09	2.01	1.43	1.39	1.31	0.90	0.86	0.78
공공행정 및 국방	2.27	2.26	2.21	1.69	1.62	1.51	1.35	1.30	1.21	1.11	1.06	0.97	0.92	0.87	0.78
교육서비스업	2.76	2.75	2.70	2.79	2.72	2.61	1.98	1.93	1.84	1.34	1.29	1.20	0.85	0.81	0.72
의료 및 보건업	5.79	5.78	5.74	4.16	4.09	4.00	3.02	2.98	2.90	2.22	2.18	2.10	1.65	1.61	1.53
사회복지 서비스업	7.20	7.19	7.15	4.82	4.76	4.67	3.67	3.64	3.57	2.88	2.84	2.77	2.30	2.26	2.20
문화서비스업	5.23	5.22	5.17	4.30	4.23	4.13	3.60	3.55	3.47	3.04	3.00	2.91	2.63	2.58	2.5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3.56	3.56	3.52	3.81	3.75	3.65	2.96	2.92	2.84	2.25	2.22	2.14	1.71	1.67	1.59
위생서비스	2.99	2.99	2.95	3.11	3.05	2.95	2.38	2.34	2.27	1.81	1.77	1.69	1.39	1.35	1.27
개인 서비스업	2.57	2.56	2.52	2.67	2.61	2.52	1.83	1.79	1.72	1.16	1.12	1.05	0.66	0.62	0.55
사회단체	4.04	4.03	4.00	2.43	2.38	2.29	1.52	1.48	1.42	0.82	0.79	0.72	0.30	0.27	0.21
전산업	3.60	3.59	3.56	2.87	2.81	2.73	2.06	2.02	1.96	1.45	1.41	1.35	1.03	1.00	0.93

〈부표 3〉 세부 업종별 수출 경향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 어업	농림어업	0.12	0.09	0.09	0.08	0.08	0.08	0.07	0.07	0.07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 및 비금속 광업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식품업	0.79	0.60	0.60	0.52	0.52	0.52	0.45	0.45	0.45	0.45	0.42	0.42	0.42	0.42	0.38	0.38	0.38	0.38
	음료품 제조업	0.11	0.11	0.11	0.11	0.11	0.11	0.11	0.11	0.11	0.11	0.11	0.11	0.12	0.12	0.12	0.12	0.12	0.12
	담배 제조업	0.14	0.12	0.12	0.12	0.12	0.12	0.11	0.11	0.11	0.11	0.11	0.11	0.10	0.10	0.09	0.08	0.08	0.08
	섬유 및 의복 제조업	3.31	2.86	2.86	2.51	2.51	2.52	2.18	2.19	2.21	1.94	1.95	1.97	1.69	1.70	1.70	1.70	1.73	1.73
	건축제품 제조업	0.34	0.27	0.27	0.28	0.24	0.24	0.21	0.22	0.22	0.20	0.21	0.21	0.19	0.19	0.19	0.19	0.20	0.20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54	0.42	0.42	0.42	0.36	0.36	0.29	0.29	0.29	0.22	0.23	0.23	0.16	0.16	0.16	0.16	0.16	0.16
	인쇄 및 복제업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6.32	7.86	7.86	6.69	6.70	6.71	5.48	5.49	5.51	4.49	4.50	4.53	5.15	5.17	5.22	5.17	5.22	5.2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06	3.61	3.61	3.26	3.25	3.23	2.78	2.76	2.74	2.32	2.31	2.28	3.34	3.32	3.32	3.32	3.27	3.27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3.17	2.56	2.56	2.13	2.12	2.12	1.72	1.71	1.71	1.41	1.41	1.40	1.34	1.34	1.34	1.34	1.33	1.33
	화학공업 제조업	0.44	0.37	0.37	0.35	0.35	0.35	0.34	0.34	0.34	0.33	0.33	0.33	0.32	0.32	0.32	0.32	0.32	0.32
비료 및 농약 제조업	0.10	0.06	0.06	0.05	0.05	0.05	0.04	0.04	0.04	0.03	0.03	0.03	0.01	0.02	0.02	0.02	0.02	0.02	
의약품 제조업	0.24	0.18	0.18	0.18	0.16	0.15	0.14	0.14	0.14	0.12	0.12	0.12	0.11	0.11	0.11	0.11	0.11	0.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97	0.90	0.90	0.82	0.82	0.82	0.74	0.74	0.74	0.70	0.70	0.69	0.63	0.63	0.63	0.63	0.62	0.62	
고무, 플라스틱제품	1.75	1.68	1.68	1.68	1.68	1.67	1.62	1.61	1.61	1.57	1.56	1.56	1.42	1.41	1.41	1.41	1.41	1.4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12	0.06	0.06	0.06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8	0.08	0.08	0.08	0.08	0.0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17	0.13	0.13	0.13	0.10	0.10	0.08	0.08	0.08	0.06	0.06	0.06	0.04	0.04	0.04	0.04	0.04	0.04	
철강	2.88	3.43	3.43	3.43	4.29	4.30	5.02	5.03	5.04	5.72	5.73	5.76	5.88	5.90	5.95	5.88	5.90	5.95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비철금속	2.11	1.61	1.60	1.38	1.37	1.37	1.19	1.19	1.18	1.07	1.07	1.06	0.94	0.93	0.92			
금속제품 제조업	1.54	1.01	1.02	0.77	0.78	0.78	0.62	0.63	0.63	0.54	0.55	0.56	0.48	0.49	0.50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2.66	2.75	2.75	3.07	3.06	3.06	3.38	3.38	3.36	3.88	3.87	3.85	4.32	4.31	4.29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3.13	3.07	3.07	3.91	3.90	3.88	4.83	4.81	4.76	6.04	6.00	5.94	7.14	7.10	7.0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0.89	0.53	0.53	0.48	0.48	0.49	0.42	0.42	0.42	0.36	0.36	0.36	0.28	0.28	0.29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6.66	7.88	7.88	10.01	10.02	10.04	11.68	11.70	11.73	13.11	13.14	13.20	13.21	13.25	13.3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0.94	0.45	0.45	0.32	0.32	0.33	0.25	0.25	0.25	0.21	0.21	0.21	0.18	0.18	0.19			
전기장비 제조업	2.84	2.17	2.17	1.51	1.52	1.53	1.02	1.03	1.04	0.70	0.71	0.72	0.45	0.46	0.47			
디스플레이	10.37	7.87	7.87	6.61	6.62	6.62	5.25	5.25	5.27	4.03	4.04	4.05	2.97	2.98	2.99			
반도체	7.96	8.43	8.43	9.71	9.72	9.72	10.37	10.38	10.39	10.53	10.54	10.56	10.06	10.08	10.12			
전자부품	1.26	1.46	1.46	1.70	1.70	1.70	1.81	1.82	1.83	1.83	1.84	1.85	1.73	1.73	1.75			
정밀기기 제조업	1.06	1.16	1.15	1.38	1.38	1.37	1.63	1.63	1.62	1.98	1.97	1.95	2.29	2.28	2.26			
자동차 제조업	9.59	10.60	10.59	12.13	12.09	12.02	13.68	13.62	13.49	15.97	15.87	15.68	18.02	17.89	17.63			
선박 제조업	10.37	14.25	14.25	13.09	13.08	13.07	13.29	13.28	13.27	11.91	11.90	11.90	10.17	10.17	10.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4	0.36	0.36	0.43	0.43	0.43	0.48	0.48	0.48	0.53	0.53	0.53	0.54	0.54	0.54			
기타 제조업	0.31	0.25	0.25	0.23	0.24	0.24	0.21	0.21	0.21	0.21	0.19	0.19	0.16	0.16	0.16			
S 전기업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O 가스, 증기, 수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 건설업	0.06	0.05	0.05	0.04	0.04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3	0.03			
도소매업	1.97	1.49	1.49	1.50	1.14	1.15	0.86	0.87	0.88	0.67	0.68	0.69	0.53	0.54	0.55			
음식점 및 숙박업	0.95	0.78	0.78	0.65	0.65	0.66	0.54	0.54	0.55	0.45	0.46	0.47	0.38	0.39	0.40			
운수 및 보관업	7.06	5.38	5.40	4.92	4.94	4.97	4.28	4.31	4.36	3.64	3.67	3.73	2.96	2.99	3.06			
금융 및 보험업	0.44	0.36	0.36	0.33	0.33	0.33	0.29	0.29	0.29	0.25	0.26	0.26	0.22	0.22	0.23			
주거서비스업	0.06	0.05	0.05	0.04	0.04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3	0.03			
부동산서비스업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부표 4〉 세부 업종별 수입 경성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 어업	농림어업	1.79	1.69	1.69	1.61	1.61	1.62	1.58	1.59	1.61	1.59	1.60	1.64	1.60	1.64	1.66	1.68	1.72	
	식단,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9.98	21.20	21.02	25.16	24.88	24.29	28.93	28.43	27.45	28.43	32.02	30.60	36.17	35.20	33.35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99	4.25	4.26	4.55	4.57	4.60	4.78	4.81	4.86	4.86	5.02	5.10	5.34	5.41	5.33			
	식품품 제조업	2.61	2.31	2.32	2.06	2.07	2.10	1.85	1.87	1.91	1.71	1.74	1.79	1.53	1.56	1.62			
	음료품 제조업	0.19	0.21	0.22	0.22	0.22	0.22	0.22	0.22	0.23	0.22	0.23	0.23	0.21	0.22	0.22			
	담배 제조업	0.05	0.04	0.04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2	0.02	0.02	0.02	0.02			
	섬유 및 의복 제조업	2.21	2.22	2.23	2.15	2.17	2.19	2.09	2.11	2.16	2.01	2.04	2.10	1.89	1.93	2.00			
	건축제품 제조업	0.81	0.77	0.77	0.70	0.71	0.72	0.65	0.66	0.67	0.60	0.61	0.63	0.56	0.57	0.59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32	0.24	0.24	0.20	0.20	0.20	0.17	0.17	0.17	0.15	0.15	0.15	0.12	0.12	0.13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81	0.59	0.60	0.46	0.46	0.47	0.34	0.35	0.35	0.25	0.25	0.26	0.16	0.17	0.17			
	인쇄 및 복제업	0.06	0.05	0.05	0.03	0.04	0.04	0.03	0.03	0.03	0.02	0.02	0.02	0.01	0.01	0.0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6.28	8.04	8.06	6.61	6.63	6.67	5.31	5.34	5.40	4.18	4.22	4.29	4.59	4.65	4.76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45	3.62	3.63	2.84	2.85	2.87	2.17	2.19	2.22	1.62	1.64	1.67	2.10	2.13	2.19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0.79	0.52	0.52	0.34	0.34	0.34	0.22	0.22	0.22	0.14	0.14	0.15	0.11	0.11	0.11			
	화학섬유 제조업	0.11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비료 및 영양 제조업	0.22	0.18	0.18	0.16	0.16	0.16	0.12	0.12	0.13	0.09	0.09	0.09	0.05	0.05	0.05				
의약품 제조업	0.88	0.70	0.71	0.61	0.61	0.62	0.54	0.54	0.55	0.48	0.49	0.50	0.42	0.42	0.4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2	2.21	2.21	2.02	2.03	2.04	1.86	1.87	1.89	1.72	1.74	1.77	1.52	1.54	1.57				
고무, 플라스틱제품	1.56	1.67	1.67	1.68	1.69	1.71	1.65	1.66	1.70	1.58	1.60	1.65	1.40	1.43	1.4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07	0.59	0.59	0.59	0.59	0.60	0.60	0.61	0.61	0.63	0.64	0.65	0.64	0.65	0.6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54	0.43	0.43	0.33	0.33	0.33	0.25	0.25	0.25	0.19	0.19	0.19	0.13	0.13	0.13				
철강	5.54	6.95	6.98	8.51	8.57	8.69	9.85	9.96	10.20	10.86	11.05	11.42	10.76	11.01	11.50				

계 조 업







〈부표 5〉 세부 업종별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 어업	농림어업	7.07	4.87	4.88	3.50	3.52	3.54	2.58	2.59	2.62	1.93	1.95	1.98	1.48	1.49	1.52			
	식단,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02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 및 비금속 광업	0.07	0.03	0.03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식품업	1.38	1.16	1.17	1.07	1.08	1.09	1.07	1.08	1.10	1.10	1.10	1.11	1.14	1.15	1.17	1.22		
	음료품 제조업	0.15	0.10	0.10	0.12	0.12	0.12	0.14	0.14	0.14	0.14	0.16	0.16	0.16	0.16	0.17	0.17	0.17	0.17
	담배 제조업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섬유 및 의복 제조업	1.48	1.31	1.31	1.27	1.28	1.29	1.28	1.29	1.30	1.24	1.24	1.25	1.28	1.17	1.19	1.22		
	건축제품 제조업	0.22	0.15	0.15	0.15	0.15	0.15	0.16	0.16	0.16	0.16	0.18	0.18	0.18	0.20	0.20	0.20	0.20	0.20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13	0.12	0.12	0.10	0.10	0.10	0.08	0.08	0.08	0.07	0.07	0.07	0.07	0.06	0.06	0.06	0.06	0.06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29	0.19	0.19	0.13	0.13	0.13	0.10	0.10	0.10	0.10	0.07	0.07	0.07	0.05	0.05	0.05	0.05	0.05
	인쇄 및 복제업	0.37	0.23	0.23	0.14	0.14	0.14	0.08	0.08	0.09	0.05	0.05	0.05	0.05	0.03	0.03	0.03	0.03	0.03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08	0.05	0.05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3	0.03	0.04	0.04	0.0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0.18	0.12	0.12	0.10	0.10	0.10	0.09	0.09	0.09	0.08	0.08	0.08	0.08	0.07	0.07	0.07	0.07	0.07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0.09	0.08	0.08	0.08	0.08	0.08	0.07	0.07	0.07	0.06	0.06	0.06	0.06	0.05	0.05	0.05	0.05	0.05	
화학섬유 제조업	0.03	0.03	0.03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비료 및 농약 제조업	0.05	0.03	0.0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의약품 제조업	0.18	0.19	0.19	0.21	0.21	0.21	0.22	0.22	0.22	0.24	0.24	0.24	0.24	0.26	0.26	0.26	0.26	0.26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28	0.26	0.26	0.32	0.32	0.32	0.36	0.36	0.37	0.41	0.41	0.41	0.41	0.45	0.45	0.45	0.45	0.45	
고무, 플라스틱제품	0.87	0.80	0.80	0.86	0.86	0.86	0.88	0.88	0.88	0.88	0.88	0.89	0.89	0.89	0.89	0.89	0.89	0.8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12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30	0.22	0.22	0.16	0.16	0.16	0.10	0.10	0.11	0.07	0.07	0.07	0.07	0.04	0.04	0.04	0.04	0.04	
철강	0.31	0.34	0.34	0.32	0.32	0.32	0.29	0.29	0.30	0.26	0.26	0.27	0.27	0.24	0.24	0.24	0.24	0.24	





〈부표 6〉 세부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 전망

(단위 : %)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2050~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 어업	농림어업	-2.79	-2.79	-2.81	-3.02	-3.02	-3.01	-3.06	-3.06	-3.06	-3.27	-3.27	-3.28	-3.54	-3.55	-3.5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8.89	-8.89	-8.93	-3.64	-3.67	-3.72	-1.07	-1.10	-1.15	0.09	0.06	0.01	0.17	0.14	0.09
	금속 및 비금속 광업	-6.85	-6.85	-6.87	-4.22	-4.23	-4.25	-4.11	-4.12	-4.14	-4.29	-4.30	-4.33	-4.65	-4.67	-4.69
	식품품 제조업	-0.80	-0.80	-0.79	-0.60	-0.57	-0.53	-0.06	-0.05	-0.02	-0.20	-0.19	-0.16	-0.40	-0.39	-0.36
	음료품 제조업	-2.77	-2.77	-2.80	1.63	1.60	1.56	1.74	1.72	1.68	0.80	0.78	0.74	-0.19	-0.22	-0.25
	담배 제조업	-2.57	-2.57	-2.59	-1.94	-1.94	-1.92	-1.36	-1.36	-1.35	-1.65	-1.65	-1.65	-2.00	-2.00	-2.00
	섬유 및 의복 제조업	-0.30	-0.30	-0.31	-0.06	-0.06	-0.04	0.00	0.00	0.00	-0.71	-0.71	-0.71	-1.48	-1.48	-1.48
	기초제품 제조업	-2.62	-2.63	-2.67	0.20	0.15	0.07	0.83	0.79	0.72	0.54	0.50	0.43	0.20	0.16	0.09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0.20	0.20	0.19	-2.29	-2.28	-2.25	-1.67	-1.67	-1.65	-1.85	-1.85	-1.84	-2.10	-2.09	-2.08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3.38	-3.38	-3.40	-3.12	-3.13	-3.13	-2.99	-3.00	-3.02	-3.82	-3.83	-3.84	-4.70	-4.70	-4.72
제조업	인쇄 및 복제업	-3.67	-3.68	-3.69	-5.02	-5.02	-5.02	-4.81	-4.81	-4.82	-5.38	-5.39	-5.40	-6.01	-6.02	-6.03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4.27	-4.27	-4.29	0.01	0.01	0.01	-0.82	-0.83	-0.83	-1.33	-1.34	-1.34	-1.88	-1.88	-1.88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38	-3.39	-3.41	-1.00	-1.01	-1.02	-1.52	-1.53	-1.55	-1.79	-1.80	-1.81	-2.09	-2.09	-2.1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0.65	-0.65	-0.68	-0.07	-0.10	-0.14	-1.03	-1.05	-1.09	-1.65	-1.68	-1.71	-2.31	-2.34	-2.37
	화학섬유 제조업	-0.26	-0.26	-0.29	-0.70	-0.72	-0.74	-0.79	-0.80	-0.82	-0.76	-0.77	-0.80	-0.77	-0.78	-0.81
	비료 및 농약 제조업	-5.31	-5.31	-5.32	-5.76	-5.76	-5.74	-6.90	-6.89	-6.89	-7.68	-7.68	-7.68	-8.50	-8.50	-8.50
	의약품 제조업	1.51	1.50	1.46	1.15	1.10	1.03	0.59	0.55	0.49	0.29	0.25	0.19	-0.05	-0.08	-0.1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21	0.21	0.18	2.26	2.24	2.21	1.33	1.31	1.28	0.67	0.65	0.62	-0.02	-0.04	-0.07
	고무, 플라스틱제품	0.03	0.03	-0.01	0.97	0.94	0.90	0.16	0.14	0.10	-0.34	-0.37	-0.41	-0.88	-0.91	-0.9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97	-0.98	-1.00	0.62	0.59	0.57	0.01	-0.01	-0.04	-0.33	-0.35	-0.38	-0.71	-0.72	-0.7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49	-2.50	-2.52	-2.99	-3.00	-3.00	-3.95	-3.96	-3.97	-4.59	-4.59	-4.60	-5.25	-5.26	-5.27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2050-2060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S1	S2	S3
부동산서비스업	1.96	1.96	1.97	0.14	0.17	0.24	-0.48	-0.47	-0.43	-1.16	-1.14	-1.10	-2.07	-2.05	-2.01
장비 및 옹골 임대업	0.53	0.52	0.50	-0.31	-0.32	-0.34	-0.83	-0.84	-0.86	-1.45	-1.46	-1.48	-2.32	-2.33	-2.35
출판업	1.90	1.89	1.85	-0.49	-0.53	-0.59	-0.83	-0.86	-0.92	-1.38	-1.41	-1.47	-2.22	-2.25	-2.30
영화	1.56	1.55	1.52	0.01	-0.02	-0.07	-0.54	-0.57	-0.61	-1.18	-1.21	-1.25	-2.07	-2.10	-2.15
방송업	3.03	3.02	2.97	-0.94	-0.99	-1.08	-1.27	-1.31	-1.39	-1.79	-1.84	-1.91	-2.61	-2.65	-2.72
통신업	-3.73	-3.73	-3.75	-1.93	-1.94	-1.95	-1.98	-1.99	-2.00	-2.32	-2.33	-2.34	-3.01	-3.02	-3.03
정보서비스업	2.27	2.27	2.21	-0.35	-0.41	-0.50	-1.01	-1.05	-1.13	-1.69	-1.74	-1.81	-2.61	-2.65	-2.73
전문서비스업	2.62	2.61	2.59	1.43	1.41	1.40	0.64	0.62	0.60	-0.31	-0.33	-0.35	-1.27	-1.28	-1.30
연구개발업	4.72	4.71	4.68	2.14	2.10	2.04	1.40	1.37	1.32	0.82	0.79	0.74	0.39	0.36	0.31
사업자일 서비스업	3.46	3.43	3.24	1.94	1.70	1.32	1.29	1.12	0.81	0.48	0.31	0.00	-0.33	-0.50	-0.80
공공행정 및 국방	-0.42	-0.42	-0.44	-0.99	-0.99	-0.99	-1.29	-1.30	-1.30	-1.79	-1.79	-1.79	-2.58	-2.58	-2.58
교육서비스업	0.44	0.44	0.41	0.03	0.01	-0.02	-0.51	-0.53	-0.56	-1.15	-1.17	-1.20	-2.05	-2.06	-2.10
의료 및 보건업	2.21	2.21	2.19	0.07	0.05	0.03	-0.51	-0.52	-0.55	-1.16	-1.17	-1.20	-2.06	-2.07	-2.10
사회복지 서비스업	7.04	7.03	7.00	3.39	3.36	3.33	2.62	2.60	2.57	2.00	1.98	1.95	1.53	1.51	1.48
문화서비스업	1.48	1.47	1.44	-0.26	-0.29	-0.32	-0.73	-0.75	-0.79	-1.33	-1.35	-1.39	-2.19	-2.21	-2.25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1.65	1.63	1.54	0.22	0.10	-0.10	-0.39	-0.48	-0.64	-1.07	-1.15	-1.31	-1.98	-2.07	-2.23
위생서비스	1.16	1.15	1.13	-0.50	-0.51	-0.52	-0.91	-0.92	-0.93	-1.47	-1.48	-1.49	-2.31	-2.32	-2.33
개인 서비스업	0.53	0.53	0.52	-1.05	-1.05	-1.04	-1.31	-1.31	-1.31	-1.79	-1.79	-1.78	-2.57	-2.57	-2.57
사회단체	-1.85	-1.85	-1.86	-1.26	-1.27	-1.27	-1.54	-1.55	-1.55	-2.02	-2.02	-2.03	-2.80	-2.80	-2.81
전산업	0.90	0.90	0.87	0.22	0.19	0.15	-0.03	-0.06	-0.10	-0.44	-0.47	-0.52	-0.91	-0.94	-0.99